농업·농촌경제동향

2012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관측센터
(한재환 jhhan@krei.re.kr/채상현 csh0331@krei.re.kr/
장도환 zzangdh@krei.re.kr)

연락처: 02-3299-4177 / 팩스: 02-964-5631

목 차

Ⅰ. 국내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1
2. 고용 ····· 3
3. 소비 ····· 5
4. 물가 ····· 7
5. 금융·환율 ····· 13

Ⅱ. 농촌경제 동향

1. 농산물 물가지수 ····· 16
2. 농림어업 취업자 ····· 21
3. 농축수산물 수출입 ····· 23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 30
2. 엽근채소 ····· 34
3. 양념채소 ····· 40
4. 과일 ····· 47
5. 과채 ····· 54
6. 축산 ····· 61

특별 주제 1.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실태와 시장전망 ····· 71
2.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실태 분석 ····· 91

【요 약】

Ⅰ. 국내경제 동향

● 2012년 2/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함.

● 2012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류 및 신발 등 준내구재가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함.

● 2012년 2/4분기 총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함.

● 2012년 6월 취업자는 2,511만 7천명으로 제조업과 농림어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36만 5천명 증가함.

● 2012년 5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의 판매가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2.2% 증가함.

● 2012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2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함(실질로는 3.8% 증가).

● 2012년 2/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4.3으로 전분기대비 0.2% 하락, 전년 동기대비 1.7% 상승함.

● 2012년 5월중 협의통화(M1,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3.5%로 전월대비 0.7%p 상승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5.5%임.

● 2012년 6월말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 종가(1,178원)대비 31원 하락한 1,147원을 기록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2년 2/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31.5로 전년 동기대비 3.0% 상승하였으며, 전분기대비 1.2% 하락함.

● 2012년 2/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고추(화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지난 분기보다 상승함.

● 2012년 2/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11.7로 전년 동기대비 5.8% 상승하였으며, 전분기대비 0.6% 하락함.

● 2012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71만 3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하였고, 전분기대비 45.7% 늘어남.

● 2012년 1~6월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총 37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함. 농림축수산물 중 농산물 수출액은 22억 9천 9백만 달러로 인삼을 제외한 채소류, 과실류, 버섯류 등 전품목이 고루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함.

● 2012년 1~6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162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함.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실태와 시장전망

● 정부는 DDA·FTA 등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농산물의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왔음.

- 친환경농식품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의 확충, 친환경농축수산물 유통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였음.

-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0년대 초반까지 매년 122.7%의 급증세를 보였고, 최근 5년(2007~2011년) 동안에는 12.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유기와 무농약이 전년보다 각각 24.5%, 0.8% 증가하였지만, 저농약이 30.8% 감소함에 따라 전년보다 1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 출하량을 보면, 유기 190,912톤(10.5%), 무농약 915,823톤(50.3%), 저농약 712,493톤(39.2%)임. 품목류별로 보면 곡류 404,825톤(22.3%), 과실류 433,346톤(23.8%), 채소류 701,894톤(38.6%) 등으로 채소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의향을 조사한 결과 구입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향후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함.

-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가공식품 모두 '가격 인하'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고, '적당한 구입처', '인증제도의 개선' 등을 그 다음으로 꼽았음.

- 구입경험자의 유기농산물의 가격 프리미엄은 51~79%, 적정 프리미엄은 37~52%로 나타났고,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프리미엄은 100%, 적정 프리미엄은 50%로 나타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친환경농식품의 가격이 소비자의 지불의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소비자들은 유기가공식품 구매 시 83.8%가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64.4%가 식품첨가물을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 추정결과 곡류의 유통규모는 약 1조 336억 원으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의 3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011년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규모는 2010년보다 3.8% 감소한 3조 2,6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2년의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11년 대비 13% 정도 증가한 3조 6,800억 원으로 전망됨.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의 꾸준한 증가로 시장규모는 2013년 3조 9,845억 원, 2015년 4조 8,329억 원으로 늘어나며,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 시장 거래액의 약 20%인 6조 9,000억원 될 것으로 전망됨.

- 저농약 인증농가의 신속한 유기와 무농약 인증 전환 및 유기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지역단위에서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중요한 관건이며, 지역적 특색에 맞는 품목과 브랜드 발굴을 통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육성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국내외적으로 친환경농식품 시장규모는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환경질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유기가공품의 원료로 유기농산물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친환경농식품의 소비활성화와 수입유기농산물 증가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가격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는 생산 및 유통부문의 적절한 대책 마련
  -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인증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품목 다양화
  -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마케팅 전략 추진
  -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 학교급식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친환경농식품의 건강과의 관계성 및 환경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홍보

2.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실태 분석

●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유통경로 및 참여주체는 매우 다양함.

- 한우농가는 산지조합 위탁판매를 통하여 출하하는 비중이 35.1%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직접 출하(31.6%)임. 한우농가가 출하경로를 선택할 때, 산지조합과 공판장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41.5%)', '가격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39.1%)'로 나타남.
- 양돈농가의 유통경로 조사결과,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판매를 통하여 돼지를 출하하는 비중이 36.4%로 가장 높음. 양돈농가가 출하경로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56.5%)', '거래처 선정 및 대금 정산 등의 편리성 때문에(43.3%)' 로 조사됨.

● 산지조합의 축산물 유통 관련 사업은 크게 수탁사업과 매취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한우의 경우 농가의 수탁 경매사업의 비중이 52.5%로 가장 높고, 매취사업의 비중도 34.1%로 높음. 돼지의 경우 매취사업 비중이 43.5%로 가장 높음.

● 산지조합의 자체 부분육 가공 후 반출경로를 살펴보면, 한우의 경우 직영판매점 및 직영식당의 비중이 49.7%로 가장 많고, 돼지의 경우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으로의 판매 비중이 36.8%로 가장 높음.

● 한우 수탁 경매사업의 경우, 산지조합이 농가로부터 수취하는 조합수수료는 경락가격의 0.1~0.5%이며, 보통 0.2%내지 0.3%가 가장 많음. 돼지의 경우, 조합수수료는 경락가격의 0.1~0.3%였으며, 두당 600~1,000원을 조합수수료로 수취하는 조합들도 있음.

● 산지조합은 자체 부분육 가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사양관리 강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품질제고, 자체 소매망 확충, 학교급식처 등 다양한 수요처 개발을 통한 비선호 부위의 수요 확대, 그리고 마케팅 능력 제고 등을 제시함.

● 도축작업장 조사결과, 한우 반입경로별 비중은 산지조합을 통한 경로가 39.1%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수집반출상, 그리고 농가 순임. 돼지 반입경로별 비중은 농가가 41.2%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수집반출상, 산지조합 순임.

● 유통비용 절감을 비롯하여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해야 할 거래 형태에 대해 한우의 경우 조사 참여 도축작업장의 42.9%가 계열화를 통한 구매로 나타남. 돼지의 경우 도축작업장의 55.4%가 계열화를 통한 구매였으며, 그 다음이 임도축(16.1%)임.

-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해야 할 반입 경로에 대해서 한우의 경우 조사 참여 도축작업장의 72.0%가 농가라고 하였으며, 돼지의 경우 74.1%가 농가라고 응답함.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확대해야 할 구매 경로에 대해 한우의 경우 조사 참여 육가공업체의 41.2%가 '산지수집상 등 중간 상인의 위탁 및 직매'를 선택하였으며, 돼지의 경우 60.0%가 '산지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위탁 및 직매'를 선택함.

● 일반소비자에 대한 한우 및 돼지고기 구매처 조사 결과 대형할인점에서의 구매 비중(한우 37.3%, 돼지고기 36.9%)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정육점(정육식당), 슈퍼마켓·중소형 마트 순이었음.

● 한우의 경우 직거래 확대는 모든 유통 주체들에게 있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부분육 유통 활성화, 가격결정 체계, 협동 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도축장 구조조정,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에 대한 정책 과제는 세 그룹 이상의 유통주체들로부터 5순위 내에 포함됨.

● 돼지의 경우, 한우와 마찬가지로 직거래 확대가 모든 유통 주체들에게 있어 높은 순위를 차지함. 세 그룹 이상의 유통주체들로부터 5순위 내에 포함되는 정책과제들은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도축장 구조조정, 가격 결정 체계,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대, 부분육 유통 활성화 등임.

Ⅰ. 국내경제 동향 1)

1. 경제성장

● 2012년 2/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함.

-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이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 제조업은 운송장비가 늘어났으나 금속제품, 전기전자기기 등이 부진하여 전기대비 0.1% 감소,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함.
- 건설업은 건물건설이 줄어 전기대비 2.1% 감소,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함.
- 서비스업은 운수보관, 부동산 및 임대 등이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 도소매음식숙박 등이 증가하여 전기대비 0.5% 증가,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함.

● 2012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류 및 신발 등 준내구재가 늘어나 전기대비 0.5% 증가,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함.

● 2012년 2/4분기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늘어나 전기대비 0.3%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함.

● 2012년 2/4분기 설비투자는 통신 및 방송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부진하여 전기대비 6.4% 감소,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함.

● 2012년 2/4분기 총수출은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0.6%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함. 총수입은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1.7%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함.

---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재환 부연구위원(jhhan@krei.re.kr), 장도환 연구원(zzangdh@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경제성장률 추이(2005년 연쇄가격 기준)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0	2011p					2012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GDP 성장률	6.3	3.6	4.2	3.5	3.6	3.3	2.8	2.4
최종소비지출	4.1	2.2	2.6	2.7	2.3	1.3	2.2	1.8
(민 간)	4.4	2.3	2.9	3.0	2.1	1.1	1.6	1.2
총고정자본형성	5.8	−1.1	−2.1	0.7	−1.5	−1.8	4.6	−1.5
(건 설)	−3.7	−5.0	−11.0	−4.2	−4.0	−2.1	1.5	−1.4
(설 비)	25.7	3.7	10.3	7.7	1.2	−3.3	8.6	−2.9
총 수 출	14.7	9.5	17.0	8.5	9.6	4.4	4.7	3.2
총 수 입	17.3	6.5	10.8	7.9	6.2	1.6	4.4	0.7

주: 2011p, 2012p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2012년 GDP 성장률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7%, 3.2% 증가하여 연간 3.0% 성장이 예상되며, 2013년은 연간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 증대로 인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며, 설비투자는 자동차, 통신 등 비IT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비주거용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임.

【 2012년 경제성장 전망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1	2012e)			2013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 D P	3.6	2.7	3.2	3.0	3.7	3.8	3.8
민 간 소 비	2.3	1.4	2.9	2.2	3.5	3.4	3.5
설 비 투 자	3.7	−0.4	3.3	1.6	3.8	1.0	2.3
건 설 투 자	−5.0	3.7	7.8	5.8	5.2	7.0	6.1
상 품 수 출	10.5	3.0	5.7	4.4	8.1	9.8	9.0
상 품 수 입	8.7	2.3	5.3	3.8	7.5	9.4	8.5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2.7.13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참고함.
2. 2012e),2013e)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 고용

● 2012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함. 실업률(계절조정)은 3.3%로 전년 동기보다 0.1%p 낮은 수준이며, 전분기보다는 0.2%p 하락한 수준임.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함.

● 2012년 6월 취업자는 2,511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6만 5천명 증가함.

● 6월 실업률(계절조정)은 3.2%로 전년 동월보다 0.1%p 낮으며, 전월과 비슷한 수준임.

● 6월 산업별 취업자를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9만 1천명)과 교육서비스업(7만 3천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5만 1천명)과 농림어업(-2만 1천명) 등에서는 감소함.

【 고 용 동 향 】

단위: 천명, %

	2010	2011					201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경 제 활 동 인 구	24,748	25,099	24,488	25,437	25,269	25,202	24,873	25,844	1.6
(경제활동참가율)	61.0	61.1	59.9	62.0	61.5	61.1	60.1	62.3	0.5
취 업 자	23,829	24,244	23,459	24,572	24,483	24,462	23,927	25,003	1.8
• 농 림 어 업	1,567	1,542	1,207	1,736	1,704	1,521	1,176	1,713	-1.3
• 광 공 업	4,049	4,108	4,163	4,143	4,054	4,072	4,051	4,076	-1.6
(제 조 업)	4,028	4,091	4,139	4,127	4,041	4,056	4,037	4,061	-1.6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8,214	18,595	18,090	18,693	18,726	18,870	18,700	19,214	2.8
(건 설 업)	1,753	1,751	1,641	1,774	1,755	1,832	1,721	1,807	1.9
실 업 자	920	855	1,028	865	786	740	947	841	-2.8
실업률(계절조정)	-	-	3.9	3.4	3.2	3.1	3.5	3.3	

자료: 통계청

【 고용 동향 변화 추이 】

단위: 천명, %(전년 동월대비)

	2011. 6		2012. 5		2012. 6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경제활동인구	25,592	1.7	25,939	1.8	25,939	1.4
취업자	24,752	1.9	25,133	1.9	25,117	1.5
(고용률)	60.3		60.5		60.4	
• 농림어업	1,790	−1.6	1,755	−1.2	1,770	−1.2
• 광공업	4,150	2.8	4,086	−1.6	4,100	−1.2
(제조업)	4,135	2.9	4,071	−1.6	4,084	−1.2
• 건설업	1,802	−2.3	1,819	1.8	1,815	0.8
• 도소매·음식숙박업	5,472	0.9	5,613	3	5,594	2.2
• 전기·운수·통신·금융	2,959	4.9	2,988	2.1	2,999	1.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8,580	2.9	8,872	3.5	8,840	3.0
실업률	3.3		3.1		3.2	
(계절조정)	(3.3)		(3.2)		(3.2)	

자료: 통계청

3. 소비

● 2012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분기대비 1.0%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로는 1.6% 증가함.

● 2012년 5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증가하여 전월대비 0.7% 증가, 전년 동월대비 2.2% 증가함.

- 내구재는 승용차 판매를 중심으로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세를 보임.
- 준내구재와 비내구재도 이른 더위에 따른 계절적 수요 증가와 휘발유 가격 안정세에 따른 차량 연료 수요 증가 등으로 개선됨.

● 향후 소매판매는 고용회복세 지속, 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소비여건이 개선되어 완만하게 호전될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도 존재함.

【 소비 동향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0	2011					2012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5월
소 매 판 매	6.7	4.3	5.4	5.7	4.7	1.9	2.0	0.3	2.2
(내 구 재)[1]	14.8	10.8	12.5	17.3	10.8	3.4	3.6	0.3	4.7
(준내구재)[2]	6.8	4.2	5.8	5.0	4.1	2.4	0.7	−0.7	1.7
(비내구재)[3]	2.2	1.1	1.4	−0.6	1.8	1.7	2.3	1.5	1.4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자료: 기획재정부

● 2012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2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실질로는 3.8% 증가)함.

- 경상소득은 7.4% 증가, 비경상소득은 2.5% 감소함.

- 비중이 65.3%로 가장 큰 근로소득이 8.2% 증가하였으며,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은 각각 2.6%, 12.1% 증가함.

● 2012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6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실질로는 2.2% 증가)함.

- 교육비만 0.2%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는 지출액이 모두 증가함.

【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소 득	5.8	5.8	3.5	4.7	6.5	7.3	6.9
(경상소득)	6.0	6.1	4.5	4.7	6.3	7.7	7.4
(비경상소득)	1.8	-3.0	-14.0	7.3	11.7	-6.5	-2.5
소 비 지 출	6.4	4.6	4.3	4.3	5.8	3.1	5.3
(식료품·비주류음료)	6.5	7.1	8.4	8.9	7.0	3.8	5.9
(의류·신발)	10.9	7.4	9.3	5.3	9.4	6.0	5.8
(교 통)	2.0	8.7	11.5	10.8	12.6	-0.7	3.6
(교 육)	2.4	-0.7	-3.0	-2.7	1.0	1.8	-0.2
(음식·숙박)	4.1	2.8	-0.6	-0.7	5.2	6.4	7.9

자료: 통계청

4. 물가

● 2012년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06.1로 전분기대비 0.2% 상승, 전년 동기대비 2.4% 상승함.

●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1로 전월대비 0.1%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2.2% 상승함.

- 상품은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3.6% 상승함.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1.0% 하락, 전년 동월대비 5.8% 상승함.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 동월대비 3.1% 상승함.
- 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전년 동월대비 1.2% 각각 상승함.

【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총 지 수	104.0	102.8	103.6	104.7	104.9	105.9	106.1
	(4.0)	(3.8)	(4.0)	(4.3)	(4.0)	(3.0)	(2.4)
상 품	105.7	104.2	104.8	106.7	106.9	108.5	109.0
	(5.7)	(5.7)	(5.4)	(6.1)	(5.4)	(4.1)	(4.0)
농축수산물	109.2	110.3	106.4	111.8	108.2	112.8	112.6
	(9.2)	(16.0)	(9.1)	(9.5)	(2.8)	(2.3)	(5.8)
공업 제품	104.9	103.1	104.5	105.7	106.4	107.5	108.2
	(4.9)	(3.8)	(4.6)	(5.5)	(5.8)	(4.3)	(3.5)
서 비 스	102.7	101.7	102.6	103.2	103.3	103.9	103.9
	(2.7)	(2.3)	(2.8)	(2.9)	(2.7)	(2.2)	(1.3)
집 세	104.0	101.9	103.4	104.6	105.9	107	108.1
	(4.0)	(2.7)	(3.7)	(4.4)	(5.0)	(5.0)	(4.5)
공공서비스	99.6	100.1	99.5	99.6	99.1	99.9	100.2
	(-0.4)	(0.1)	(-0.4)	(-0.5)	(-1.0)	(-0.2)	(0.7)
개인서비스	103.7	102.3	103.7	104.3	104.5	104.8	104.3
	(3.7)	(3.2)	(3.9)	(3.9)	(3.8)	(2.4)	(0.6)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1			2012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총 지 수	103.4	103.6	103.8	106.0	106.2	106.1
상 품	104.6	104.7	105.0	108.9	109.2	108.8
농축수산물	108.5	105.1	105.7	113.0	112.9	111.8
공업 제품	104.0	104.7	104.9	108.0	108.4	108.1
서 비 스	102.4	102.6	102.8	103.7	103.9	104.0
집 세	102.9	103.4	103.9	107.8	108.1	108.4
공공서비스	99.5	99.5	99.5	100.1	100.1	100.3
개인서비스	103.5	103.8	103.9	104.2	104.4	104.4

자료: 통계청

● 2012년도 2/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4.3으로 전분기대비 0.2% 하락,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함.

●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9로 전월대비 1.4% 하락, 전년 동월대비 0.8% 상승함.

● 6월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21.2로 채소류와 과실류 등이 내려 전월대비 5.9% 하락함.

● 6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25.5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통신장비 등은 상승하였으나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이 내려 전월대비 1.6% 하락함.

- 서비스는 운수 및 금융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하락함.

【 부문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총 지 수	115.1	122.1	120.7	122.2	122.7	122.8	124.6	124.3
	(3.8)	(6.1)	(6.7)	(6.4)	(6.2)	(5.0)	(3.2)	(1.7)
농림수산품	120.0	128.9	139.8	124.6	128.1	123.2	132.6	127.0
	(9.0)	(7.4)	(21.0)	(6.7)	(5.1)	(−2.1)	(−5.2)	(1.9)
광 산 품	140.8	143.0	141.2	141.8	143.3	145.7	146.8	147.9
	(11.4)	(1.6)	(0.1)	(0.9)	(1.6)	(3.6)	(4.0)	(4.3)
공 산 품	115.9	124.8	122.5	125.4	125.7	125.9	127.4	127.2
	(4.3)	(7.7)	(7.9)	(8.2)	(8.1)	(6.7)	(4.0)	(1.4)
전력/수도/가스	128.7	136.2	131.7	133.6	137.0	142.5	145.4	145.0
	(4.1)	(5.8)	(3.3)	(4.6)	(5.7)	(9.5)	(10.4)	(8.5)
서 비 스	109.8	111.8	111.3	112.0	112.0	111.8	112.8	113.0
	(1.7)	(1.8)	(1.9)	(2.2)	(1.9)	(1.3)	(1.3)	(0.9)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05년=100) 】

	2011			2012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총 지 수	122.4	122.3	121.9	125.3	124.6	122.9
농림수산품	130.7	122.3	120.9	130.9	128.8	121.2
광 산 품	141.5	141.5	142.4	147.4	147.9	148.4
공 산 품	125.4	125.6	125.1	128.5	127.6	125.5
전력/수도/가스	132.3	134.3	134.2	145.6	144.6	144.7
서 비 스	112.0	112.1	111.9	113.1	113.0	112.8

자료: 한국은행

● 2012년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13.2로 전분기대비 0.1% 하락, 전년 동기대비 2.5% 상승함.

● 6월 수출물가지수는 111.8로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6%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2.2% 상승함.

- 계약통화 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2.5%, 전년 동월대비 4.4% 각각 하락함.

● 6월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70.8로 전월대비 1.8% 상승, 전년 동월대비로는 3.6% 상승함.

● 6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1.5로 컴퓨터, 영상음향, 통신장비제품, 장비제품 및 전기장비제품의 가격은 상승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화학, 고무제품이 크게 내려 전월대비 1.6% 하락, 전년 동월대비로는 2.2% 상승함.

【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05년=100) 】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총 지 수	106.4	111.1	110.9	110.5	110.2	113.0	113.3	113.2
	(−2.6)	(4.4)	(6.6)	(3.4)	(2.1)	(5.6)	(2.2)	(2.5)
농림수산품	137.7	162.2	149.8	155.8	166.7	176.4	168.8	167.3
	(8.3)	(17.8)	(20.4)	(11.2)	(15.4)	(24.4)	(12.7)	(7.4)
공 산 품	106.3	110.9	110.7	110.2	109.9	112.7	113.0	112.9
	(−2.6)	(4.4)	(6.5)	(3.4)	(2.0)	(5.5)	(2.1)	(2.4)
원 자 재	148.3	171.7	159.8	165.6	175.7	185.6	177.8	175.6
	(10.3)	(15.8)	(20.2)	(9.2)	(11.6)	(22.7)	(11.3)	(6.0)
자 본 재	106.9	103.7	103.6	102.0	102.1	185.6	105.4	107.9
	(−11.7)	(−3.0)	(−3.3)	(−4.8)	(−6.2)	(22.7)	(1.7)	(5.8)
소 비 재	87.1	85.0	84.9	83.4	83.7	107.2	86.5	87.3
	(−11.5)	(−2.4)	(−2.2)	(−4.8)	(−5.8)	(2.6)	(1.9)	(4.7)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출물가지수 변화추이(2005년=100) 】

	2011			2012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총 지 수	111.8	110.2	109.4	114	113.7	111.8
농림수산품	148.5	154.0	164.8	163.3	167.7	170.8
공 산 품	111.6	109.9	109.2	113.8	113.4	111.5
원 자 재	158.2	165.7	172.8	171	176	179.7
자 본 재	102.2	101.8	101.9	106.8	107.9	108.9
소 비 재	83.8	83.2	83.2	86.9	87.4	87.6

자료: 한국은행

● 2012년도 2/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66.3으로 전분기대비 2.2% 하락, 전년 동기대비 0.9% 상승함.

● 6월 수입물가지수는 161.2로 원유 및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6%, 전년 동월대비 1.2% 각각 하락함.

- 계약통화 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4.6%, 전년 동월대비 8.0% 각각 하락함.
- 원자재의 경우, 천연고무, 옥수수 등 농림수산품과 광산품 가격이 모두 내려 전월대비 6.7% 하락함.
- 자본재는 전월대비 0.8% 상승, 소비재는 전월대비 1.4% 하락함.

● 6월 농림수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85.0으로 전월대비 1.7% 하락, 전년 동월대비 8.8% 하락함.

【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05년=100) 】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총 지 수	145.0	164.4	161.2	164.9	163.8	167.8	170.0	166.3
	(5.3)	(13.4)	(16.9)	(14.2)	(11.3)	(11.5)	(5.5)	(0.9)
농림수산품	171.0	200.6	208.7	204.1	196.8	192.9	187.5	188.5
	(9.2)	(17.3)	(32.5)	(24.0)	(12.7)	(3.0)	(−10.2)	(−7.6)
공 산 품	129.2	136.3	136.8	135.7	135.2	137.6	137.8	136.6
	(−0.1)	(5.5)	(9.5)	(5.5)	(3.4)	(3.9)	(0.7)	(0.7)
원 자 재	185.8	237.2	224.2	240.5	238.0	246.0	253.6	243.3
	(16.7)	(27.6)	(30.9)	(29.9)	(25.5)	(24.7)	(13.1)	(1.2)
자 본 재	117.9	116.8	116.6	114.4	115.2	120.9	117.8	119.0
	(−8.8)	(−0.9)	(0.1)	(−1.8)	(−4.7)	(2.8)	(1.0)	(4.0)
소 비 재	126.3	128.2	128.0	127.3	126.6	130.8	132.4	131.7
	(−3.2)	(1.5)	(2.9)	(0.8)	(−0.8)	(3.0)	(3.4)	(3.5)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입물가지수 변화추이(2005년=100) 】

	2011			2012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총 지 수	167.6	163.9	163.2	170.5	167.2	161.2
농림수산품	207.6	202.9	201.7	191.7	188.8	185.0
공 산 품	136.6	135.6	134.8	137.6	137.0	135.0
원 자 재	247.9	237.0	236.6	255.5	245.4	229.0
자 본 재	114.1	114.5	114.6	117.4	119.3	120.2
소 비 재	127.0	128.1	126.7	133.0	131.9	130.0

자료: 한국은행

5. 금융·환율

● 2012년 5월중 협의통화(M1,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전월 2.8%에서 3.5%로 0.7%p 상승함.

- 계절조정계열 기준, M1은 요구불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3% 증가

● 2012년 5월중 광의통화(M2,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5.5%임.

-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럽 재정위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가계부문 안전자산 선호 증가 등으로 만기 2년미만 정기예적금과 금융채 등을 중심으로 0.3% 증가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전월 8.6%보다 소폭 내린 8.4%를 기록함.

【 통화지표 증감률 (평균잔액기준) 】

단위: 전년 동월대비, %

	2011					2012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M1[1]	5.4	5.1	4.1	2.0	1.6	2.3	1.1	2.1	2.8	3.5
M2[2]	4.0	4.2	4.4	4.4	4.4	4.8	5.3	5.7	5.5	5.5
Lf[3]	5.6	5.7	6.1	6.2	6.2	6.5	7.2	8.7	8.6	8.4
본원통화[4]	12.4	10.9	10.1	10.3	8.9	11.0	8.3	8.3	10.2	9.1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2년 6월중 국고채(3년)금리는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주요국 정책금리 인하, 외국인 국채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하락함. 국고채 금리는 3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임.

- 6월중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 잔액은 국고채 만기도래 증가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7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

● CD(91일) 금리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채는 3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금 리 동 향 】

단위: %

	2011			2012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고채(3년)	3.47	3.39	3.36	3.37	3.43	3.55	3.50	3.38	3.29
콜 금 리[1]	3.24	3.26	3.26	3.26	3.25	3.25	3.25	3.26	3.26
CD유통수익률(91일)	3.58	3.56	3.55	3.55	3.53	3.54	3.54	3.54	3.54
회 사 채[2]	4.29	4.24	4.24	4.24	4.25	4.36	4.25	4.01	3.87

주 1.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2.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자료: 한국은행

● 6월말 원/달러 환율은 1,147원으로 전월말 종가인 1,178원 보다 31원 하락함.

-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유럽 은행 직접지원 합의 등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 6월말 원/100엔 환율은 원화 강세와 엔화의 달러 대비 약세로 전월 1,493원 보다 51원 하락한 1,442원을 기록함.

Ⅱ. 농촌경제 동향[2)]

1. 농산물 물가지수

1.1. 생산자물가지수

● 2012년 2/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31.5로 전년 동기대비 3.0% 상승하였으며, 전분기대비 1.2% 하락함.

- 식료품 중 특히 채소류가 전년 동기대비 30.1%로 크게 상승한 반면, 축산물류는 15.1%로 하락하였음.
- 농업용품의 경우는 비료가 전년 동기대비 10.0% 상승하였고, 사료 3.1%, 농약 2.0%, 농업용 기계 4.9%로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함.

【 농업분야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

	2011		2012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식료품	133.7	127.7	133.1	131.5	3.0	−1.2
식료품(이외)	119.6	121.7	123.8	123.6	1.6	−0.2
곡물	95.6	102.3	107.7	108.2	5.8	0.5
채소	186.3	124.8	178.0	162.4	30.1	−8.8
과실	158.3	132.2	141.5	143.4	8.5	1.3
축산물	137.2	134.9	116.3	114.5	−15.1	−1.5
육가공품	164.3	167.0	167.1	166.2	−0.5	−0.5
과실채소가공품	140.6	138.9	142.1	143.8	3.5	1.2
낙농품	127.0	129.4	138.6	137.9	6.6	−0.5
사료	182.3	194.2	200.9	200.2	3.1	−0.3
비료	157.8	161.0	174.6	177.1	10.0	1.4
농약	123.5	123.5	126.0	126.0	2.0	0.0
농업용 기계	129.2	129.6	135.6	136.0	4.9	0.3

자료: 통계청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재환 부연구위원(jhhan@krei.re.kr), 채상현 연구원(csh0331@krei.re.kr)이 작성하였음.

1.2. 소비자물가지수

● 2012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분기대비 0.2% 상승, 농축수산물은 전분기대비 0.2% 하락함.

● 농산물의 경우, 과실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하락하여 전분기대비 0.3% 하락하였고, 축산물은 전분기대비 1.1% 하락함.

【 농업분야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1		2012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102.8	103.6	105.9	106.1	2.4	0.2
농축수산물	110.3	106.4	112.8	112.6	5.8	-0.2
농산물	110.9	103.2	118.2	117.8	14.1	-0.3
곡물	106.6	112.0	118.7	118.5	5.8	-0.2
채소	109.7	85.6	100.5	96.7	13.0	-3.8
과실	113.6	114.7	124.7	129.0	12.5	3.4
기타농산물	115.4	114.6	179.7	172.9	50.9	-3.8
축산물	110.0	112.0	103.2	102.1	-8.8	-1.1
수산물	108.2	108.3	110.9	112.8	4.2	1.7

자료: 통계청

1.3.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 2012년 2/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고추(화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함.

● 2012년 2/4분기 곡물 가격 중 쌀 가격은 전분기보다 0.2%, 콩(백태)은 5.8% 상승함.

● 2012년 2/4분기 채소 가격은 고추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전분기대비 상승하였으며, 특히, 배추가 50.1%, 무가 27.2% 큰 상승폭을 보였음.

● 2012년 2/4분기 과일 가격 중 사과(후지)의 가격은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보다 상승하여 강세를 나타낸 반면, 배(신고)의 가격은 전분기대비해서는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하락함.

【 농산물 도매가격지수(2010년=100) 】

	2011		2012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07.0	115.0	123.9	124.1	7.9	0.2
콩(백태)	145.7	147.9	106.9	113.1	-23.5	5.8
배추	127.6	47.5	58.7	88.2	85.6	50.1
무	67.4	52.8	42.4	53.9	2.1	27.2
고추(화건)	144.4	143.2	231.2	210.4	46.9	-9.0
마늘(난지)	131.5	109.3	86.1	98.8	-9.6	14.8
양파	103.2	48.1	57.9	65.3	35.7	12.7
사과(후지)	145.7	135.9	132.6	146.0	7.5	10.2
배(신고)	137.6	147.4	125.8	134.6	-8.7	7.0
느타리	94.4	96.0	103.8	106.2	10.6	2.4
참깨	119.9	114.3	114.1	116.3	1.7	1.9

주: 전국도매시장의 품목별 단위별 가격 자료를 201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 농산물 체감물가지수[3)]

● 2012년 2/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11.7로 전년 동기대비 5.8% 상승한 반면, 전분기대비 0.6% 하락함.

- 배추, 무, 파, 양파, 사과, 마늘의 생활물가지수가 전분기대비 상승하였고, 쌀, 돼지고기, 닭고기, 오이, 토마토의 경우는 하락하였음.

3)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만으로 구성한 물가지수임.

【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추이(2010년=100) 】

【 주요 농산물 생활물가지수(2010년=100) 】

	2011		2012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103.6	110.3	121.1	120.7	9.4	-0.3
쇠고기(국산)	96.2	88.6	86.9	86.9	-1.9	0.0
돼지고기	121.1	132.6	114.1	112.3	-15.3	-1.6
닭고기	109.2	107.7	101.4	100.6	-6.6	-0.8
사과	120.0	121.1	123.8	132.3	9.2	6.9
배추	119.5	60.2	50.2	80.7	34.1	60.8
무	82.3	71.9	55.4	63.0	-12.4	13.7
오이	102.4	78.5	142.4	93.4	19.0	-34.4
토마토	108.1	84.3	123.5	104.2	23.6	-15.6
파	134.5	63.6	65.6	73.3	15.3	11.7
양파	122.6	85.7	87.2	95.6	11.6	9.6
마늘	128.9	126.1	107.8	113.9	-9.7	5.7

자료: 통계청

1.5.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

● 2012년 2/4분기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12.5로 전년 동기대비 10.5%, 전분기 대비 0.4% 상승함.

- 신선채소는 배추의 경우 크게 상승하였으나, 호박, 오이 등의 과채류 하락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4.7% 하락함.
- 신선과실은 대부분 품목이 상승하여 전분기대비 3.4% 상승함.

【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1		2012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신선식품	111.1	101.8	112.0	112.5	10.5	0.4
신선어개	109.1	108.6	110.8	112.8	3.9	1.8
신선채소	108.3	82.1	100.0	95.3	16.1	−4.7
배추	119.5	60.2	50.2	80.7	34.1	60.8
무	82.3	71.9	55.4	63.0	−12.4	13.7
풋고추	97.8	77.9	145.1	99.5	27.7	−31.4
오이	102.4	78.5	142.4	93.4	19.0	−34.4
호박	102.0	73.5	118.5	67.7	−7.9	−42.9
토마토	108.1	84.3	123.5	104.2	23.6	−15.6
버섯	99.5	99.5	107.2	105.8	6.3	−1.3
신선과실	113.6	114.7	124.7	129.0	12.5	3.4
사과	120.0	121.1	123.8	132.3	9.2	6.9
배	123.3	124.5	126.0	127.2	2.2	1.0
귤	116.1	119.2	146.0	166.7	39.8	14.2
기타신선	125.6	123.1	105.8	111.9	−9.1	5.8

자료: 통계청

2. 농림어업 취업자

● 2012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71만 3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하였고, 전분기대비 45.7% 늘어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분기대비 32.5% 증가한 94만 5천명이었고, 여성은 65.9% 증가한 76만 8천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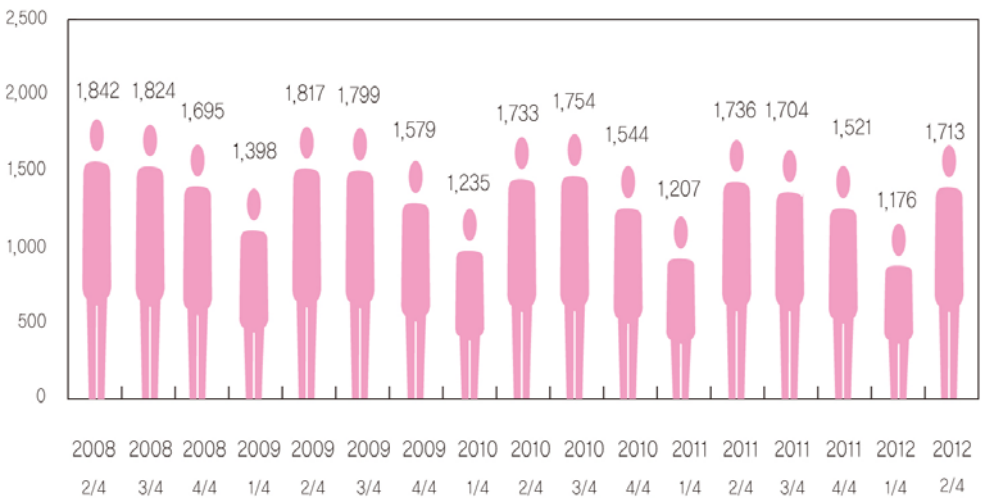
【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11		2012		증감률	
		1/4	2/4	1/4	2/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 비
취업자	전산업	23,459	24,572	23,927	25,003	1.8	4.5
	농림어업	1,207	1,736	1,176	1,713	-1.3	45.7
	남성	735	935	713	945	1.1	32.5
	여성	472	802	463	768	-4.2	65.9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



● 2012년 2/4분기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는 1~17시간 취업자수가 전분기 대비 61.7%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수는 전분기대비 140.3% 증가하였음.

- 일시 휴직자는 1만 3천명으로 전분기대비 63.9% 감소하였고, 주당 평균시간은 41.7시간으로 전분기대비 39% 증가함.

【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11		2012		증감률	
	1/4	2/4	1/4	2/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 비
전체	1,207	1,736	1,176	1,713	−1.3	45.7
1~17시간	281	107	269	103	−3.7	−61.7
18~35시간	350	367	361	369	0.5	2.2
36시간 이상	554	1,245	511	1,228	−1.4	140.3
일시 휴직	21	17	36	13	−23.5	−63.9
주당 평균시간	30.8	42.2	30.0	41.7	−1.2	39.0

자료: 통계청

3. 농축수산물 수출입

3.1. 수출 동향

● 2012년 1~6월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일본 대지진에 따른 특수 효과 약화로 둔화된 증가세를 보여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한 37억 2천만 달러임.

● 농산물 수출액은 인삼을 제외한 파프리카 등의 채소류와, 멜론 등 과실류, 팽이버섯 등의 버섯류 등 전품목이 고루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5.2% 증가함.

● 수산물 수출액은 참치, 고등어, 김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한 11억 7천 9백만 달러를 기록함.

【 농림축수산물 수출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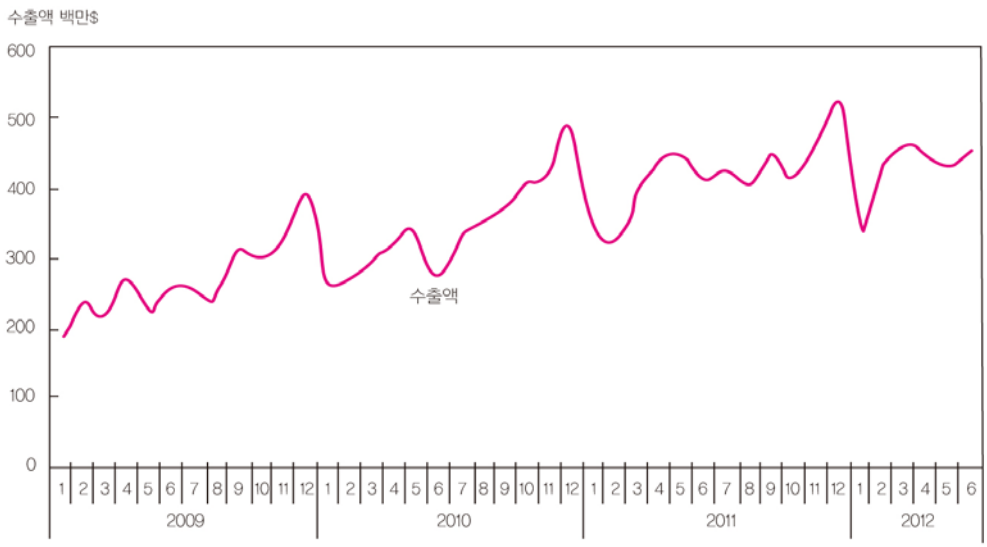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11. 1~6		2012. 1~6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28	2,439	1,240	2,542	-6.6	4.2
농 산 물	1,212	2,227	1,116	2,299	-7.9	3.3
축 산 물	29	80	34	100	17.7	25.2
임 산 물	86	132	90	142	4.2	7.7
수 산 물	353	1,087	368	1,179	4.5	8.4
전 체	1,680	3,526	1,608	3,720	-4.3	5.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2년 6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유자차, 김치, 팽이 버섯 등의 채소류와 참치, 김 등의 수산물류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9.2%, 전월대비 5.1%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출 추이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2. 수입 동향

● 2012년 1~6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총 162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함.

【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11. 1~6		2012. 1~6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21,567	14,398	22,257	14,277	3.2	-0.8
농 산 물	14,912	9,192	15,625	9,378	4.8	2.0
축 산 물	726	2,472	646	2,265	-11.0	-8.4
임 산 물	5,929	2,734	5,985	2,634	0.9	-3.7
수 산 물	2,363	2,103	2,345	1,963	-0.8	-6.6
전 체	23,930	16,501	24,602	16,240	2.8	-1.6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2년 6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월대비 4.6%, 전월대비 1.6% 감소함.

【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3. 국가별 수출입 동향

3.3.1.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동향

● 2012년 1~6월 중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5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1. 1~6		2012. 1~6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91,090	333,849	183,540	356,746	-4.0	6.9
농 산 물	161,995	288,904	159,348	316,687	-1.6	9.6
축 산 물	2,969	18,734	4,075	24,218	37.3	29.3
임 산 물	26,126	26,211	20,117	15,841	-23.0	-39.6
수 산 물	73,790	197,908	65,515	183,589	-11.2	-7.2
합 계	264,880	531,757	249,054	540,335	-6.0	1.6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곡류와 화훼류, 버섯류 품목의 수출액이 감소한 반면 채소류는 106.3%, 낙농품은 71.9% 등으로 크게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1. 1~6		2012. 1~6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곡류	1,385	1,603	1,230	1,357	−11.3	−15.3
과실류	13,370	19,094	13,707	20,912	2.5	9.5
채소류	433	3,032	747	6,255	72.6	106.3
화훼류	826	5,335	619	3,970	−25.1	−25.6
버섯류	862	1,392	169	306	−80.5	−78.0
낙농품	1,342	12,494	2,781	21,477	107.2	71.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2년 1~6월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5.0%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산물의 수입이 크게 감소함.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1. 1~6		2012. 1~6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3,020,266	1,905,384	2,857,278	1,890,980	−5.4	−0.8
농 산 물	1,715,263	1,200,946	1,420,514	1,118,556	−17.2	−6.9
축 산 물	10,704	30,671	11,599	30,209	8.4	−1.5
임 산 물	1,294,299	673,767	1,425,164	742,215	10.1	10.2
수 산 물	510,970	652,950	336,350	538,253	−34.2	−17.6
합 계	3,531,236	2,558,334	3,193,627	2,429,233	−9.6	−5.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3.2.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2년 1~6월 일본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6억 6천 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9% 증가함. 이는 참치, 파프리카, 소주, 김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과실류는 배, 포도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32.8% 증가함.
- 채소류는 파프리카, 토마토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6.5% 증가함.
- 화훼류는 튤립, 난초, 장미, 백합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6.0% 증가함.

【 대일본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1. 1~6		2012. 1~6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484,038	641,139	386,235	665,834	-20.2	3.9
곡류	5,615	5,127	5,675	5,755	1.1	12.2
과실류	5,072	11,984	5,737	15,913	13.1	32.8
채소류	23,410	88,705	28,406	112,205	21.3	26.5
화훼류	2,452	23,090	2,599	26,779	6.0	16.0
버섯류	367	1,176	431	1,211	17.4	2.9
낙농품	990	3,974	1,918	8,152	93.8	105.2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2년 1~6월 일본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8.5%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산물 수입이 크게 감소함.

【 대일본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1. 1~6		2012. 1~6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00,015	244,936	77,598	199,587	-22.4	-18.5
농 산 물	53,557	202,251	38,335	164,099	-28.4	-18.9
축 산 물	1,237	9,614	9,426	15,328	661.8	59.4
임 산 물	45,221	33,071	29,838	20,160	-34.0	-39.0
수 산 물	37,398	112,803	21,165	62,631	-43.4	-44.5
합 계	137,414	357,740	98,763	262,218	-28.1	-26.7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3.3. 대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2년 1~6월 미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억 1천 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함. 이는 곡류, 화훼류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과실류, 채소류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임.

- 채소류는 무, 호박, 마늘 등이 감소하였으나 양배추, 양파, 상치, 고추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3.4% 증가함.
- 과실류는 감귤, 배, 포도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45.9% 증가함.
- 버섯류는 팽이버섯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7.8% 증가함.

【 대미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1. 1~6		2012. 1~6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83,222	200,685	91,977	213,567	10.5	6.4
곡류	3,478	5,065	2,768	2,896	−20.4	−42.8
과실류	4,662	5,707	4,518	8,328	−3.1	45.9
채소류	2,306	7,832	2,099	9,663	−9.0	23.4
화훼류	89	981	66	680	−25.2	−30.7
버섯류	1,185	2,328	1,427	2,742	20.5	17.8
낙농품	2,176	2,275	2,239	2,421	2.9	6.4

3.3.4.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2년 1~6월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억 8천 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함.

- 과실류는 사과, 유자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69.8% 증가함.
- 채소류는 호박, 무 등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였으나, 고추, 오이, 김치 등은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6.3% 증가함.
- 화훼류는 난초, 백합, 장미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3.1% 증가함.

【 대EU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천 kg, 천 달러

구 분	2011. 1~6		2012. 1~6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7,303	265,518	123,470	281,300	5.3	5.9
곡류	624	914	394	725	-36.9	-20.7
과실류	6,474	5,625	10,587	9,548	63.5	69.8
채소류	2,509	4,753	3,122	5,529	24.4	16.3
화훼류	99	1,183	94	1,339	-4.9	13.1
버섯류	464	2,080	688	3,264	48.3	57.0
낙농품	2,320	4,168	2,627	4,815	13.2	15.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2년 1~6월 EU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26.6% 증가하였으며 특히,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

【 대EU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단위: 천 kg, 천 달러

구 분	2011. 1~6		2012. 1~6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06,649	1,456,922	2,219,305	1,844,456	100.5	26.6
농 산 물	591,467	716,415	1,621,251	1,102,128	174.1	53.8
축 산 물	151,675	537,415	141,187	518,915	-6.9	-3.4
임 산 물	363,507	203,092	456,867	223,413	25.7	10.0
수 산 물	170,755	436,169	155,432	420,711	-9.0	-3.5
합 계	1,277,403	1,893,091	2,374,737	2,265,167	85.9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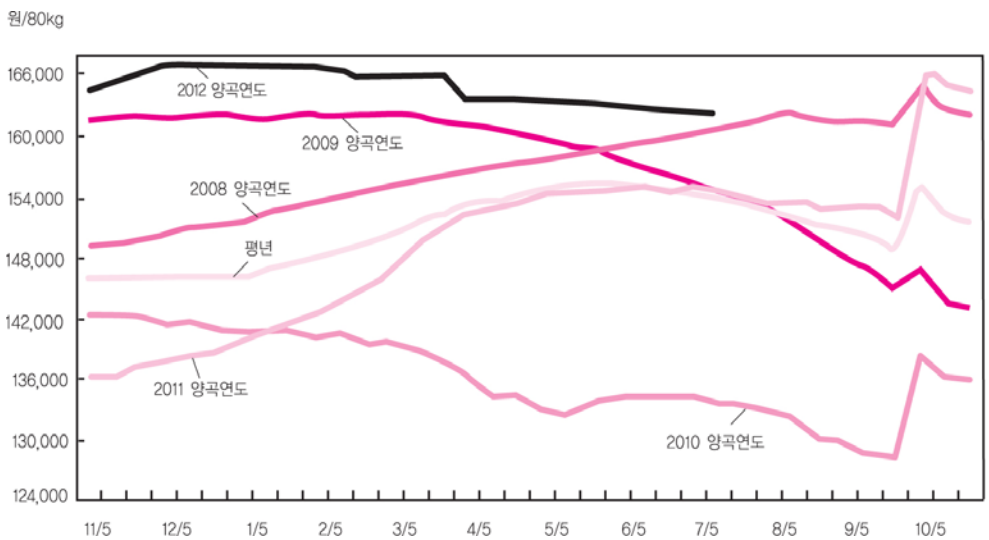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4)]

1.1. 쌀

【 산지 쌀 가격 추이 】



자료: 통계청

● 상반기 동향

- 수확기 급등하였던 산지 쌀 가격은 2012년 1월 들어 2009년산 정부쌀 20만 톤이 방출됨에 따라 약보합세로 전환됨.
- 산지유통업체의 쌀 판매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로 산지 쌀 가격은 1월 이후 약보합세를 지속함.
- 2012년 7월 15일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은 80kg당 16만 2,552원으로 수확기 평균가격 보다 2.1% 하락함.
- 농업관측센터 조사결과, 5월말 산지유통업체의 쌀 판매량은 전년대비 6.4% 감소하였으나, 재고량은 전년대비 34.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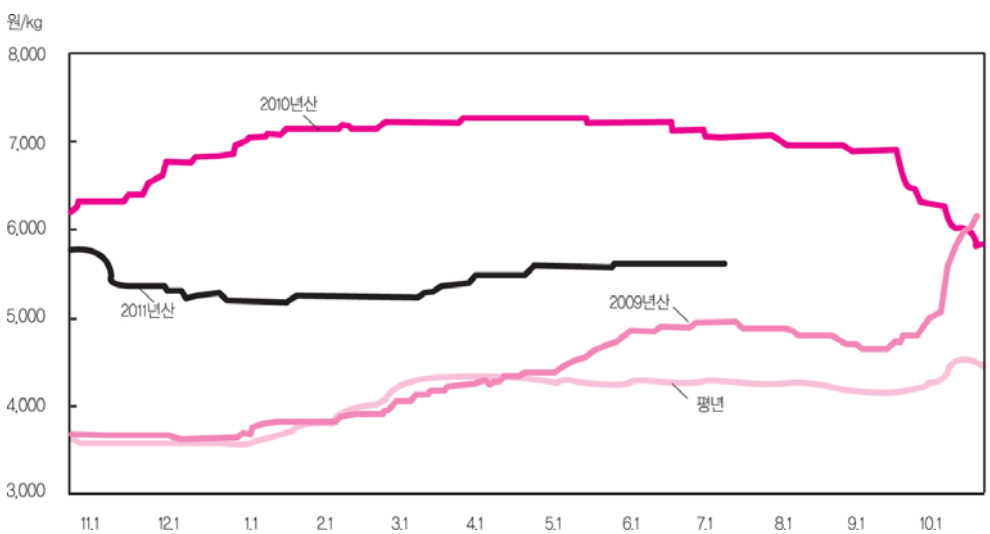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석호 부연구위원(shohan@krei.re.kr), 승준호(jhseung@ krei.re.kr), 권나경(naijiong@)krei.re.kr), 최수진(sujinchoi@ 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2년 하반기 전망

- 농업관측센터 논벼 표본농가 조사결과, 벼 가격 상승,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규모 축소,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완료로 2012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1만 8천 ha(2.1%) 증가한 87만 2천 ha로 나타남.
- 6월까지 지속된 가뭄 피해가 미미하고, 산지유통업체 재고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2양곡연도 시장공급 가능물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단경기(7~9월) 산지 쌀 가격은 현시세의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1.2. 콩

【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



주: 평년 가격은 2007~201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2년 상반기 동향

- 저가신고 농산물 단속으로 통관절차 강화, 국제 대두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2012년(1~5월) 콩 수입량 전년 동기대비 19.4% 감소한 9만 6,549톤
- 국산 콩 7월(19일까지) 평균 도매가격은 5,583원/kg으로 전월대비 0.1%, 평년대비 64.6%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43.6% 낮은 수준으로 4월 이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하반기 전망

-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규모 축소로 논콩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년 콩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7.8% 감소한 7만 1,757ha로 전망됨.
-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량 감소가 예상되어 향후 국산 콩 가격은 수확기까지 강보합세 지속 전망

1.3. 국제곡물

● 전 세계적인 기상 악화에 따른 주요 곡물 생산국의 작황 부진 및 생산량 감소로 2012년 6월 하순부터 국제곡물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함.

- 7월 들어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세 전환 및 곡물 선물투기 증가도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침.

● 2012년 7월 들어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7월 20일 기준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은 톤당 각각 347달러, 325달러, 646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41.1%, 20.6%, 28.7% 상승, 옥수수와 대두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임.

【 국제곡물 선물가격 동향 】

단위: 달러/톤, %

	2008년 평균	2011년 평균	2012년 (1~6월)	2012년 7월	2012년 7월 20일	전일 대비	전년 동월대비
밀	294	261	236	310	347	43.8	41.1
옥수수	208	267	248	301	325	36.7	20.6
대두	453	484	495	604	646	23.6	28.7

주: 2012년 7월 가격은 7월 1일~20일까지의 평균 가격임.
자료: 시카고 선물거래소(CBOT)

● 구소련 지역의 작황 부진으로 2012/13년 세계 밀 생산량은 6억 5,506만 톤으로 전년대비 5.7% 감소, 소비량은 6억 7,325만 톤으로 생산량을 초과함에 따라 밀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1.9%p 하락할 전망임.

● 미국의 생산량 감소로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사료용 수요 증가로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생산량을 초과함에 따라 2012/13년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1.8%p 하락한 13.2%로 전망됨.

● 세계 대두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함에 따라 2012/13년 세계 대두 기말재고율은 20.4%로 전년대비 0.3%p 하락할 전망임.

- 2012년 세계 대두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2011/12년)과 미국 생산량(2012/13년)은 각각 전년대비 13.2%, 16.3%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국제 대두가격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수확기 이후인 2012년 2월부터 상승세를 보였고, 최근 9월 수확기를 앞둔 미국의 생산량 감소 전망에 따라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

【 국제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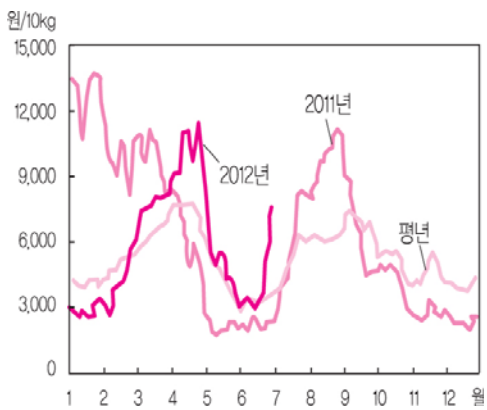
구 분		2010/11	2011/12 (추정)	2012/13 (전망)	전년대비 (%)
밀	생산량	651.14	694.69	655.06	-5.7
	소비량	653.67	689.12	673.25	-2.3
	교역량	132.43	150.40	134.21	-10.8
	기말재고량	197.23	197.18	179.49	-9.0
	기말재고율(%)	30.2	28.6	26.7	-1.9p
옥수수	생산량	829.12	873.7	857.51	-1.9
	소비량	850.03	863.83	871.44	0.9
	교역량	91.46	98.84	96.90	-2.0
	기말재고량	124.31	129.37	115.29	-10.9
	기말재고율(%)	14.6%	15.0%	13.2%	-1.8p
대두	생산량	264.69	235.88	252.43	7.0
	소비량	251.31	253.42	255.45	0.8
	교역량	92.65	90.18	90.31	0.1
	기말재고량	70.13	52.51	52.15	-0.7
	기말재고율(%)	27.9	20.7	20.4	-0.3p

자료: KREI-KOWGOS(Korean World Grain Outlook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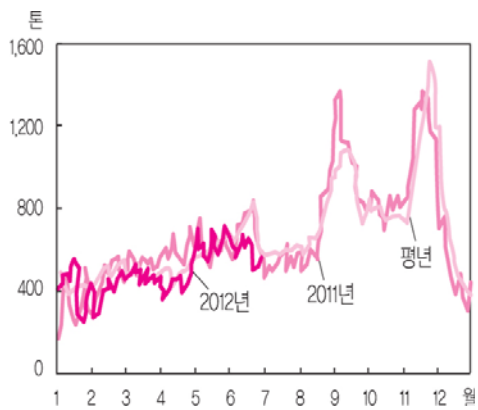
2. 엽근채소[5)]

2.1. 배 추

【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7~201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2/4분기 배추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상품 10kg)은 평년 동기보다 22% 높았음. 2/4분기 배추 가격은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하락세
- 4월 배추 가격은 2월 한파 영향으로 저장 겨울배추 감모율이 증가하여 가격이 크게 높았음. 5월 가격은 평년 수준이었으나 6월은 평년보다 21% 높았음. 이는 6월 하순경 봄배추 출하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저장수요가 증가하여 시장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분기: (2012년) 6,438원/10kg, (2011년) 3,376원, (평년) 5,295원

● 3/4분기 전망

- 고랭지배추 생산량 평년보다 22% 적으나 작황이 좋지 않았던 작년보다 8% 증가 전망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서대석 부연구위원(dssuh@krei.re.kr), 이형용(lhy2813@krei.re.kr), 윤선희(sunny@krei.re.kr), 공민지(eyebrow-mj@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4,563ha로 작년보다 3%, 평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고랭지배추 단수는 정식 및 생육기 가뭄과 고온 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4% 감소하나 강수일이 많아 작황이 좋지 않았던 작년보다 11% 증가한 10a당 3,431kg으로 전망됨.

- 3/4분기 배추 출하량은 저장 출하가 증가하나 산지 출하가 감소하여 평년보다 적을 전망
  * 8월까지 출하 가능한 배추 전체 저장량은 저장이 많았던 작년보다도 50% 내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3/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준고랭지배추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평년보다 높으나 작년보다는 다소 낮을 전망
  * 다만, 장마가 장기화되거나 집중호우, 고온 등의 영향을 받을 경우 가격은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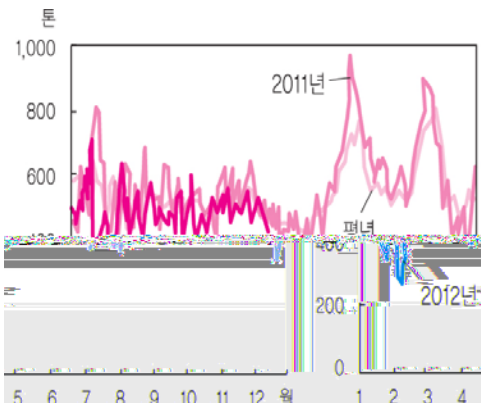
● 2012년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 2012년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이 낮아 작년보다 21%, 평년보다 4% 감소한 13,639ha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경기·강원 16%, 충청 21%, 호남 25%, 영남이 22% 감소하고, 주요 대체작물로는 콩, 옥수수, 무 등인 것으로 조사됨.
- 평년 단수를 적용한 봄배추 추정 생산량은 136만 6천톤으로 재배면적과 단수가 크게 증가했던 작년보다 28%, 평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2. 무

【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무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7~201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2/4분기 출하량 작년보다 3% 감소
  * 저장 월동무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고 노지봄무는 가뭄으로 단수가 낮아 2/4분기 출하량이 감소함.
- 2/4분기 무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12%, 평년보다 22% 높은 수준임.
  * 2분기: (2012년) 10,540원/18kg, (2011년) 9,440원, (평년) 8,660원

● 3/4분기 전망

- 고랭지무 생산량은 작년보다 10% 증가할 전망
  *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5% 증가한 2,858ha가 될 것으로 조사됨.
  * 평년 단수를 가정한 추정 생산량은 작년보다 10% 증가한 8만 2천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가을무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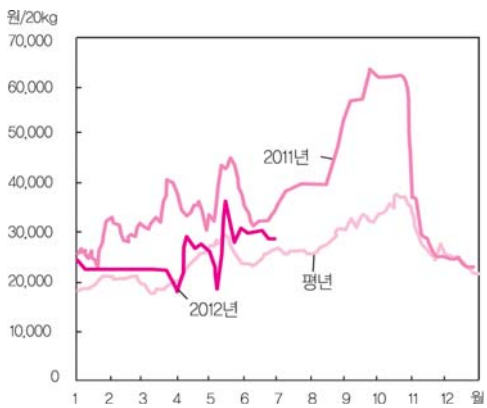
- 2012년 가을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6% 감소하고 평년보다 1% 증가한

8,148ha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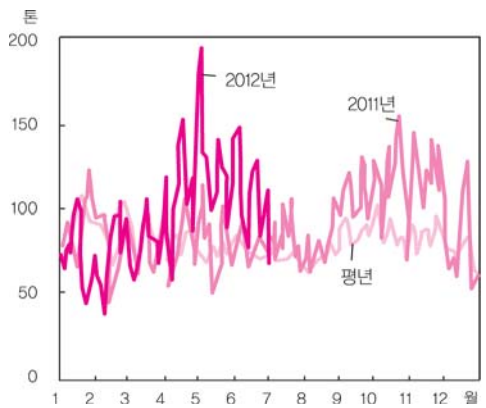
- 평년 단수를 적용한 가을무 추정 생산량은 57만 9천톤으로 작년보다 19% 적고 평년보다 1% 많을 것으로 전망됨.

2.3. 당 근

【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당근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7~201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2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도매가격은 햇당근인 영남지방 봄당근이 출하되면서 상품 20kg당 2만 8,189원으로 1/4분기보다 강세를 보임. 이는 작년 동기대비 21% 낮으나 평년 동기대비 12% 상승한 수준임.

  * 2분기: (2012년) 28,189원/20kg, (2011년) 35,719원, (평년) 25,158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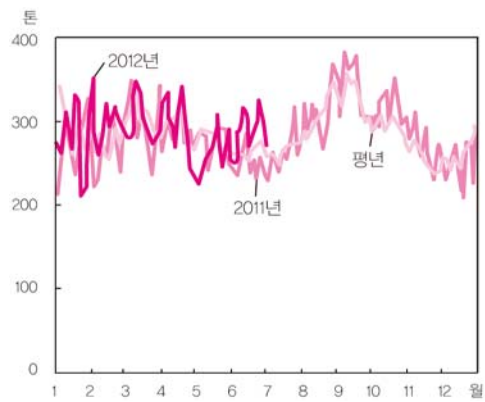
● 2012년 3/4분기 전망

- 고랭지당근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봄당근 생산량 증가로 봄당근 저장량이 작년보다 20% 이상 많을 것으로 조사되어 도매가격은 상품 20kg 기준으로 작년보다 낮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됨.

2.4. 양배추

【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양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7~201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2년 2/4분기 동향

- 2/4분기 도매가격은 겨울 저장양배추 물량이 부족한데다 봄양배추 출하가 지연되면서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6월 중순 이후 봄양배추 출하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하락. 이는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준임.

  * 2분기: (2012년) 9,502원/20kg, (2011년) 3,069원, (평년) 4,59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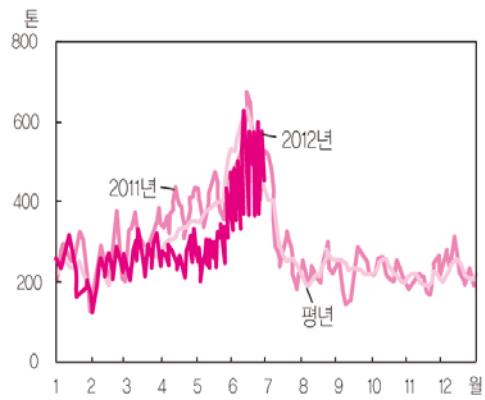
● 2012년 3/4분기 전망

- 고랭지양배추와 가을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14%, 1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6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3/4분기 가격은 작년보다 낮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됨.

2.5. 감자

【 감자(수미) 도매가격 추이(상품) 】

【 감자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7~201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2/4분기 수미 도매가격은 시설봄감자와 노지봄감자의 작황이 나빠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하여 상품 20kg당 4만 4,750원이었음. 이는 작년보다 56%, 평년 동기보다 50% 높은 수준임.

● 3/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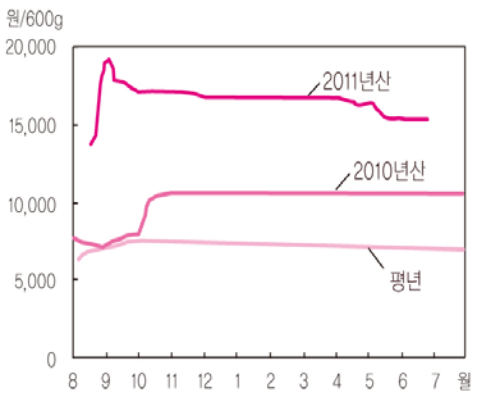
- 고랭지감자 수확기인 작년 8~10월 가격과 파종기인 금년 4~5월 감자가격 강세로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2/4분기 가격은 작년보다는 낮으나 평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됨.

3. 양념채소[6)]

3.1. 건고추

【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양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년 8월~2011년 7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8월 가격은 햇 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4분기 동향

- 건고추 2/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화건이 1/4분기 대비 9% 낮은 1만 2,870원, 양건은 5% 낮은 1만 5,890원이었음.
  * 화건: (2/4분기) 12,870원/600g → (1/4분기) 14,140원
  * 양건: (2/4분기) 15,890원/600g → (1/4분기) 16,800원
- 이는 민간수입이 증가하고, 작년 높은 가격으로 수매된 물량이 수확기 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출하가 많았기 때문임.
- 2011년 8월~2012년 6월 25일까지의 건고추 공급량은 이월·수입량 증가에도,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보다 4% 적은 18만 2,100톤, 수출·소비량은 전년 동기보다 3% 감소한 17만 3,200톤이었음.
- 따라서 건고추 6월 말 재고량은 전년 동기보다 17% 적은 8,900톤으로 추정됨.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성우 부연구위원(swootamu@krei.re.kr), 박영구(ygpark@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김지연(jykim12@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건고추 재고량 추정(6월 말 현재) 】

연산	생산량(A)	8~6월 이월·수입량 (B)	공급량 (C=A+B)	8~6월 수출·소비량 (D)	6월 말 재고량 (E=C-D)
2011	77,110	105,008	182,118	173,240	8,878
2010	95,391	93,237	188,628	177,930	10,698
증감률(%)	-19.2	12.6	-3.5	-2.6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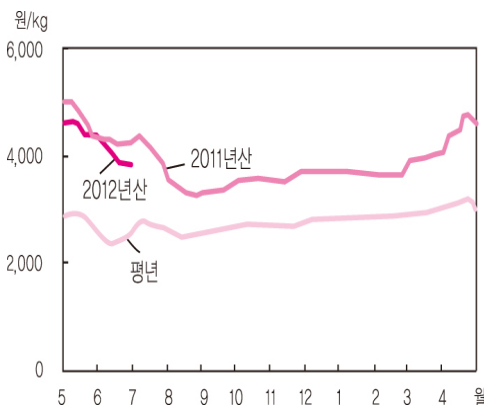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12년 3/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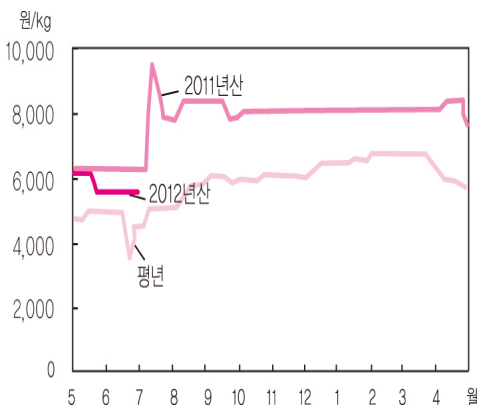
- 금년산 재배면적은 최근 2년 농가수취가격이 평년보다 2배 높아 전년산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3/4분기(수확기) 햇건고추 도매가격은 기상이 좋을 경우, 작황이 크게 부진하였던 작년보다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3.2. 마 늘

【 난지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한지형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2007년 5월~2012년 4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4분기 가격 동향

- 마늘 2/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2012년산 생산량 증가로 작년 동기보다 10% 낮은 상품 kg당 4,330원(난지형 기준) 수준임.

  * 난지형 마늘: (금년) 4,330원/kg → (작년) 4,790원 → (평년) 2,790원

  * 한지형 마늘: (금년) 6,630원/kg → (작년) 6,390원 → (평년) 4,860원

● 2012년산 생산 및 수입동향

- 2012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28,278ha이며, 품종별로 한지형은 전년보다 14%, 난지형은 19% 증가하였음(통계청 4.25)
- 2012년산 마늘 예상단수는 전년보다 7% 감소한 1,138kg/10a로 조사됨. 한편, 지역별 기상 요소와 최종단수와의 관계를 고려한 단수모형 분석결과, 전년대비 10% 감소한 1,107kg/10a로 추정됨.
- 따라서 금년산 마늘 재배면적(28,278ha)에 예상 단수(1,107~1,138kg/10a)를 적용할 경우, 2012년산 마늘 생산량은 32만 톤 내외로 전년보다 6~9% 많은 것으로 추정됨.
- 한편, 6월 말 현재 2012년산 중국 햇마늘 산지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톤당 8,500위안(1,340달러)내외로 작년(3,000위안)보다 크게 높아 민간 수입가능가격은 10,000원/kg 내외이며, 냉동마늘도 작년 동기(1,000원)와 전월(1,600원)보다 높은 3,000원/kg 내외인 것으로 조사됨.

【 2012년산 마늘 생산량 추정 】

연 산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톤)
2012		28,278	1,110~1,140	313.9~322.4
2011		24,035	1,227	295.0
평년		25,781	1,279	333.3
증감률(%)	전년	17.7	−9.5~−7.1	6.4~9.3
	평년	9.7	−13.2~−10.9	−5.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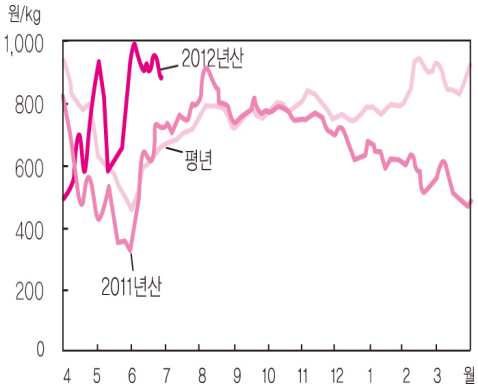
주: 2012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3/4분기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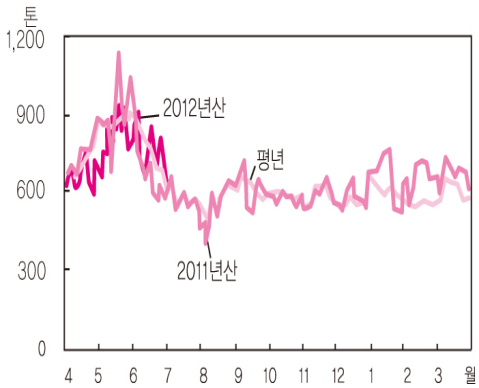
- 마늘 민간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2년산 생산량 증가로 인해 3/4분기 난지형 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3,630원)와 올해 2분기(4,330원)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3.3. 양 파

【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양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7년 4월~2012년 3월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가격 동향

- 양파 2/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43%, 평년대비 18% 높은 770원임.
  * (금년) 770원/kg → (전년) 540원 → (평년) 650원
- 이는 2012년산 양파 생산량(112만 톤)이 전년(152만 톤)보다 26% 적었던 데다, 기상 악화로 상품 물량 비율도 낮았기 때문임.

● 3/4분기 수급 전망

- 조생종 양파 생산량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12만 톤으로 추정됨.

【 2012년산 조생종 생산량 추정 】

연 산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톤)
2012		2,267	5,317	120.5
2011		2,661	6,556	174.5
평년		2,567	6,436	165.2
증감률(%)	전년	-14.8	-18.9	-30.9
	평년	-11.7	-17.4	-27.1

주: 2012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전년대비 26% 감소한 100만 톤으로 추정됨.

【 2012년산 중만생종 생산량 추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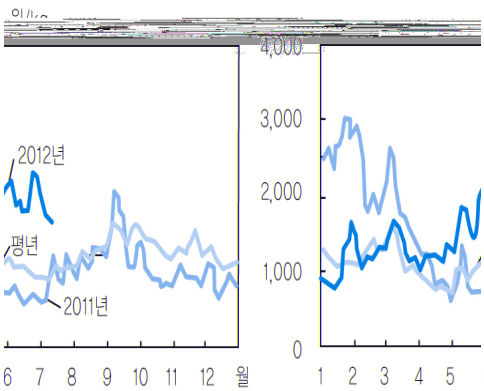
연 산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톤)
2012		18,690	5,348	1,000.0
2011		20,315	6,624	1,345.6
평년		16,712	6,777	1,132.5
증감률(%)	전년	-8.0	-19.3	-25.7
	평년	11.8	-21.1	-11.7

주: 2012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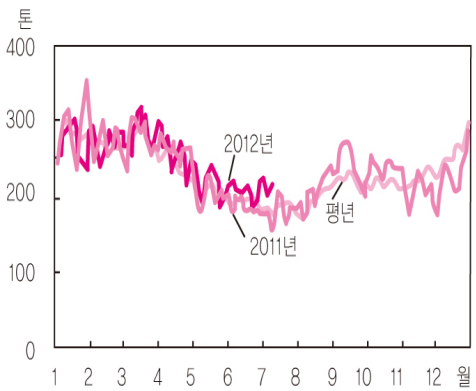
- 따라서 3/4분기 양파 가격도 전년 및 평년대비 상승 전망.

3.4. 대 파

【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대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7년~2011월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대파 2/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610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93%, 98% 높은 수준이었음.

  * (금년) 1,610원/kg → (작년) 835원 → (평년) 81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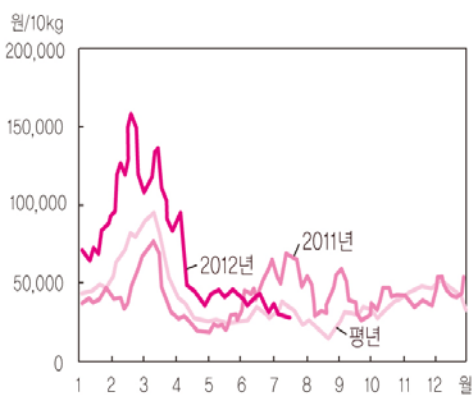
- 이는 작년 가격하락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5~6월 주산지의 지속된 가뭄과 고온으로 작황이 나빠 출하량이 크게 적었기 때문임.

● 3/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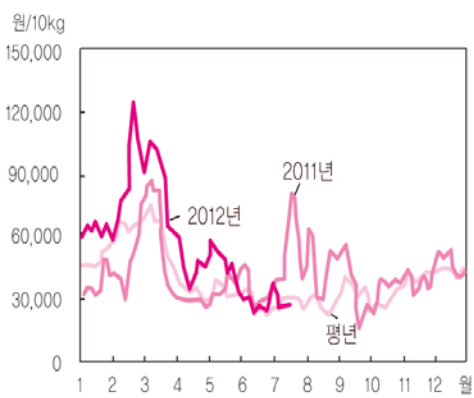
- 3/4분기 대파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경기·강원의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작년 동기보다 적을 전망임.
- 따라서, 대파 3/4분기 가격은 작년 동기(1,200원)보다 높을 전망임.
- 7~8월 대파 출하량은 작년 동기대비 19% 적고, 9월~익년 4월 출하예상면적도 작년 동기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3.5. 풋고추

【청양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7~201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풋고추의 2/4분기 상품 10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청양이 작년보다 41% 일반은 23% 높았음.
  * 청양: (금년) 44,700원/kg → (작년) 31,810원 → (평년) 29,730원
  * 일반: (금년) 40,230원/kg → (작년) 32,809원 → (평년) 31,590원
- 이는 주출하지인 경남의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가, 작년 정식이후 기상악화로 인한 단수 감소로 전체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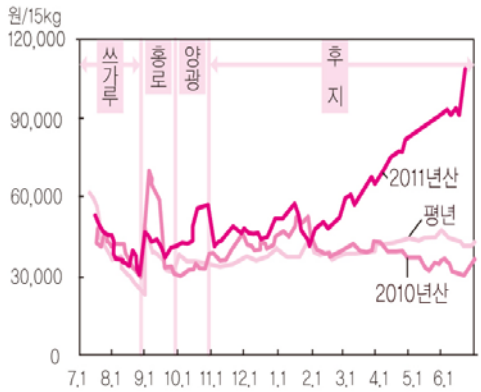
● 3/4분기 전망

- 3/4분기 가격은 작년 동기(44,420원) 대비 약세로 전망됨.
- 이는 가격이 높아 정식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4. 과일[7)]

4.1. 사과

【 사과 도매가격(상품) 】



【 사과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7~2011년산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2/4분기 후지 사과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반입량이 작년보다 54% 적어 상품(특·상·중·하 구분) 15kg에 8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144% 높았음.

● 3/4분기 전망

- 7월 중순부터 출하된 햇사과인 쓰가루는 출하량이 작년보다 1% 많지만 저장사과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가격은 작년의 4만 6천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생산량 전망

- 올해 성목면적은 작년보다 1% 늘고 단수가 4% 증가하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5% 많은 39만 9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 충청, 호남지역은 작황이 양호해 단수가 작년보다 각각 11%, 16% 증가하고, 경남지역은 착과수가 적어 단수가 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경북지역의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재환 부연구위원(jhhan@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윤종민(yoongu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단수는 작년보다 2% 증가하지만 우박·가뭄 피해를 입은 일부지역의 단수가 감소하여 사과 작황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사과 생산량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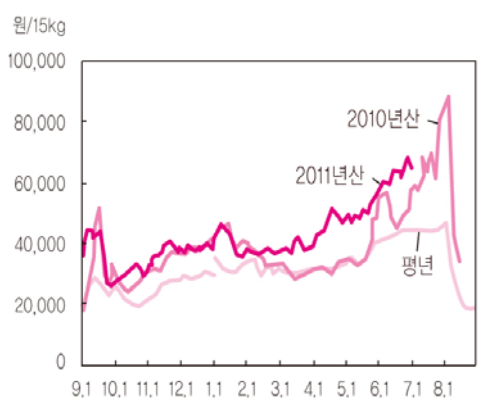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1년(A)	21,395	1,774	380
2012년(B)	21,629	1,846	399
평년	19,519	2,334	456
증감률(B/A)	1.1	4.1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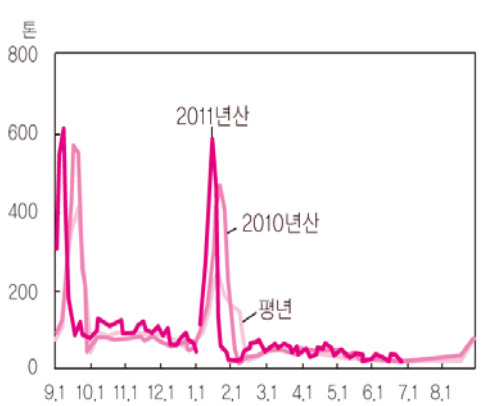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6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4.2. 배

【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배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7~2011년산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2/4분기 신고 배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5kg에 4월은 4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42% 높았음. 5월은 5만원으로 작년보다 31% 높았고, 6월은 21% 높은 6만 2천원이었음.

- 4~6월 배 반입량은 작년보다 4% 적었고 대과보다 중소과 저장비율이 높아 상품과 중품간의 가격차이가 컸음.

● 3/4분기 전망

- 8월에 출하되는 햇배 원황의 가격은 저장배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생산량 전망

- 올해 성목면적은 작년보다 4% 줄고 단수가 4% 증가하여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29만 2천톤으로 전망됨.
-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전국적으로 흑성병 발생률이 높고 일부 지역에 우박 피해가 발생하여 비상품과 비율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배 생산량 전망 】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1년(A)	13,831	2,100	290
2012년(B)	13,346	2,185	292
평년	15,536	2,504	398
증감률(B/A)	-3.5	4.0	0.4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6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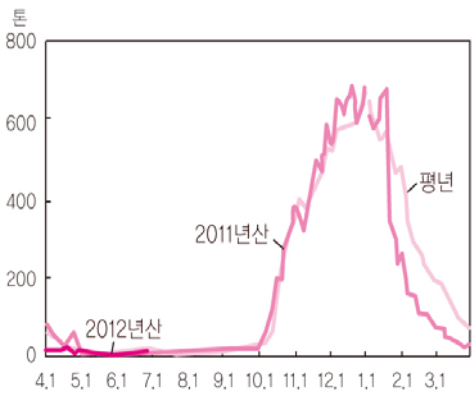
4.3. 감귤

● 2/4분기 동향

- 4월 월동온주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3kg에 2만 2천원으로 작년보다 57% 높았음.
- 하우스온주는 5월 2만 9천원, 6월 2만 8천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7%, 149% 높았음. 유류비 인상으로 조기가온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하우스온주 5월, 6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각각 12%, 42% 감소하였음.

【 감귤 도매가격 동향(상품) 】

【 감귤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7~2011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3/4분기 전망

- 8월 하우스온주는 출하량은 면세유 단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으로 가온 시기가 지연되어 작년보다 5%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생산량 전망

- 올해 성목면적은 작년보다 3% 줄고 단수는 비슷하여 생산량이 작년보다 3% 감소한 53만 3천톤으로 전망됨. 작년보다 착과가 양호하였으나 생리낙과가 많았고 과실비대가 작아 단수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 감귤(노지) 생산량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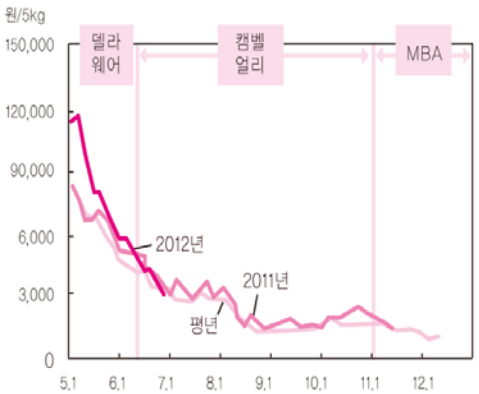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1년(A)	17,750	3,092	549
2012년(B)	17,202	3,100	533
평년	18,121	3,176	574
증감률(B/A)	−3.1	0.3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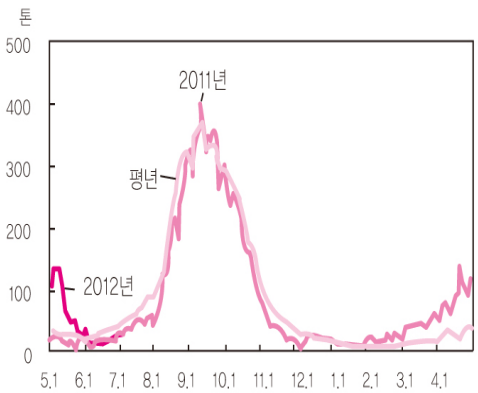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관측센터 6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4.4. 포도

【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



【 포도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7~2011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5월 델라웨어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2kg에 3만 4천원으로 작년보다 10% 높았음. 이는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가온재배 면적이 줄었고, 가온시기도 지연되어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었기 때문임. 6월은 1만 8천원으로 작년과 비슷하였음.

● 3/4분기 전망

- 8~9월에 출하될 포도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8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5%, 9월 이후는 2%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임.

● 생산량 전망

- 올해 포도 생산량은 작년보다 3% 증가한 27만 8천톤으로 전망됨.
- 시설포도 생산량은 4만 6천톤으로 작년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노지재배에서 무가온시설재배로 전환하는 면적이 늘었고 폐원된 과원에 식재가 이루어지면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됨.
- 비가림·노지포도 생산량은 23만 2천톤으로 작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포도 생산량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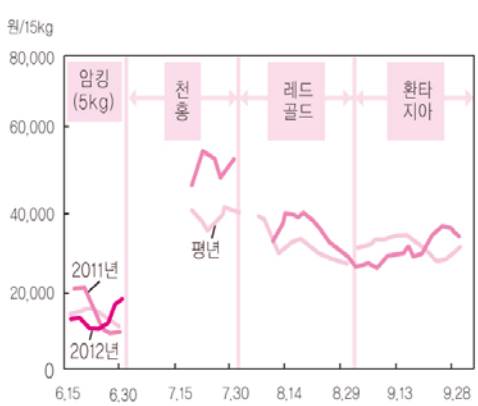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시설	2011년	1,998	2,016	40
	2012년	2,247	2,051	46
	증감률	12.5	1.7	14.5
비가림·노지	2011년	12,722	1,799	229
	2012년	12,397	1,874	232
	증감률	-2.6	4.2	1.5
전체	2011년	14,720	1,828	269
	2012년	14,644	1,900	278
	증감률	-0.5	3.9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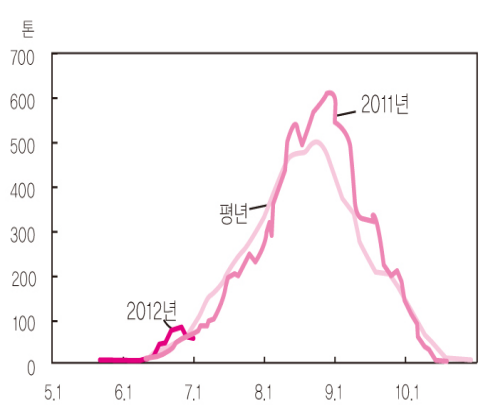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6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4.5. 복숭아

【 천도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복숭아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7~2011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6월 암킹 복숭아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이 작년보다 22% 많아 상품(특·상·중·하 구분) 5kg에 1만 2천원으로 작년보다 13% 낮았음.

● 3/4분기 전망

- 8월 복숭아는 출하량이 작년보다 3% 많아 가격이 작년의 2만 2천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 9월 이후 출하량은 작년보다 3% 적을 전망임.

● 생산량 전망

- 올해 성목면적과 단수는 작년보다 각각 1% 증가하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1% 많은 18만 8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 품종별로는 유모계 단수가 작년보다 2% 증가하고 천도계는 경북 경산·영천의 작황이 좋지 않아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복숭아 생산량 전망 】

단위: ha, kg/10a, 천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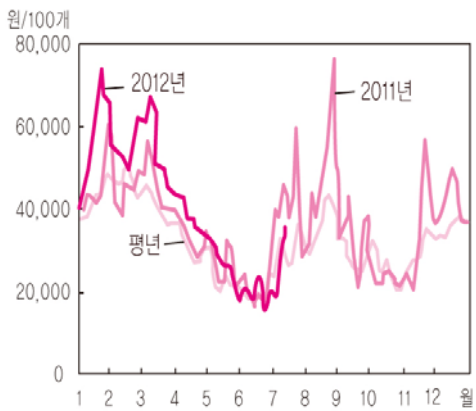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1년(A)	9,538	1,940	185
2012년(B)	9,584	1,958	188
평년	9,245	2,017	186
증감률(B/A)	0.5	0.9	1.4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6월 29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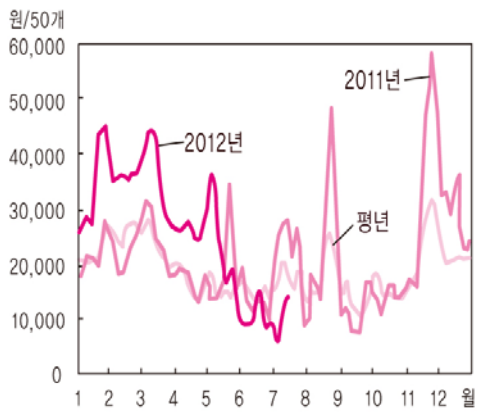
5. 과채[8)]

5.1. 오이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7~2011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4월 3만 7,500원, 5월 2만 6,200원 6월 1만 9,600원으로 4월은 작년보다 12% 높았지만 5, 6월은 각각 3%, 11% 낮았음.
- 백다다기오이는 충청,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재배면적이 확대되었지만 흐린 날씨가 지속되는 등 일조시간 부족으로 4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8% 적었음. 하지만 작황 회복으로 5월은 26% 많았음.
- 취청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0개에 4월 2만 6,100원, 5월 2만 2천원, 6월 1만 200원으로 4, 5월은 작년보다 각각 54%, 15% 높았지만 6월은 23% 낮았음.
- 취청오이는 전남 구례에서 일부 농가가 애호박으로 전환하여 출하면적이 줄었고 호남지역의 작황 부진으로 4, 5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각각 26%, 2%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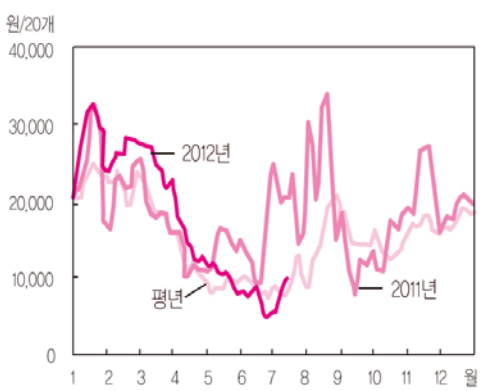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국승용 연구위원(gouksy@krei.re.kr), 김수림(surim@krei.re.kr), 김재한(jaehan@krei.re.kr), 정세미(wjdtpal55@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3/4분기 전망

- 6월말~7월 중순 사이의 강우로 인한 일조량 감소, 7월 중순 이후 고온 등의 영향으로 백다다기와 취청오이의 출하량이 감소하여 6월보다는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백다다기오이 정식면적은 강원 홍천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횡성에서 일부 멜론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있어 7월은 1%, 8월은 3% 축소될 것으로 조사되어 9~10월 출하는 평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취청오이 7월 정식면적은 강원 횡성에서 2기작 면적이 증가하고 충남 천안은 시설면적이 확대로 작년보다 5% 증가하여 향후 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5.2. 호박

【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애호박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7~2011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4월 1만 4,600원, 5월 1만 200원, 6월 7,100원으로 4월은 작년보다 11% 높았으나 5, 6월은 각각 27%, 46% 낮았음.
- 4월은 주산지인 경남 진주, 전남 광양에서 신규시설 증가로 출하면적이 확대되었으나 봄철 일조시간 부족 및 작황이 좋지 않아 반입량이 작년보다 5%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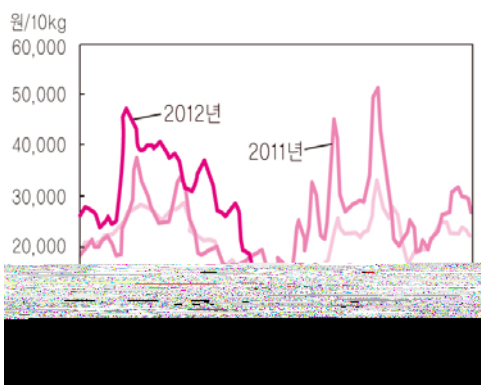
- 5, 6월은 영남지역의 출하가 지속되고 충청지역의 시설면적이 확대로 출하면적이 증가하고 작황이 양호하여 반입량이 작년보다 각각 25%, 9% 많았음.

● 3/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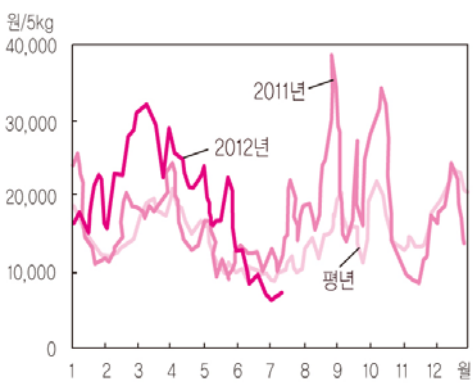
- 7월 정식면적은 강원, 충청지역의 재배면적 확대로 작년보다 2% 확대되고, 8월은 충북 청원, 음성, 충남 부여 등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시설면적 증가 및 기존농가의 재배규모 확대로 작년보다 6% 확대될 것으로 조사되어 애호박 여름철 출하면적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7~2011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4월 3만 3,800원, 5월 2만 7,500원, 6월 1만 4천원이었음. 2/4분기 평균가격은 2만 5,1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5%, 평년 동기보다 40% 높았음. 이는 2~3월의 한파와 일조량 부족으로 영·호남 출하량이 감소한데다, 강원 지역의 토마토 출하도 지연되면서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6월 중순부터는 생육 지연되었던 토마토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임.
- 방울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4월 2만 3,400원,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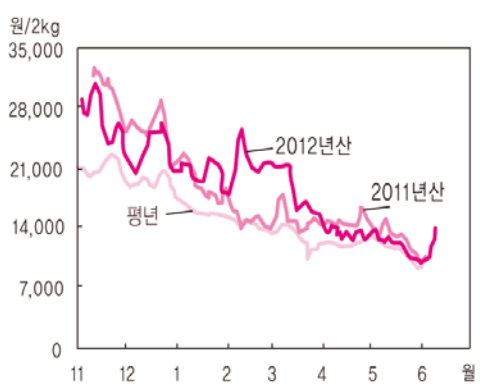
1만 9,100원, 6월 9,9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1만 7,4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7%, 평년 동기보다는 33% 높았음. 봄철의 기상악화로 충청과 호남 출하량이 감소한데다, 수박, 참외 등의 대체 품목 출하가 지연되면서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함. 다만, 6월부터는 대추형토마토 출하량이 증가하고, 대체품목의 출하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임.

● 3/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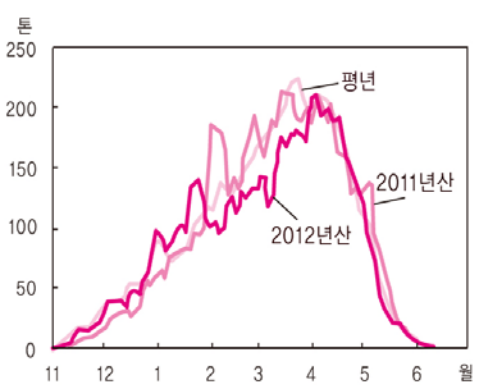
- 지속된 가격 호조로 재배면적이 증가한데다, 기상피해가 컸던 작년보다 작황도 좋아 일반과 방울토마토 7월 출하량은 각각 10% 증가 전망. 이에 따라 7월 가격도 약세 전망됨.
- 2012년 7~8월 정식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 호조로 일반토마토가 작년보다 각각 6%, 7% 증가하고, 방울토마토는 각각 5%, 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10월까지의 일반토마토와 방울토마토 출하예상면적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4. 딸기

【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딸기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7~2011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딸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4월 1만 3,400원, 5월 1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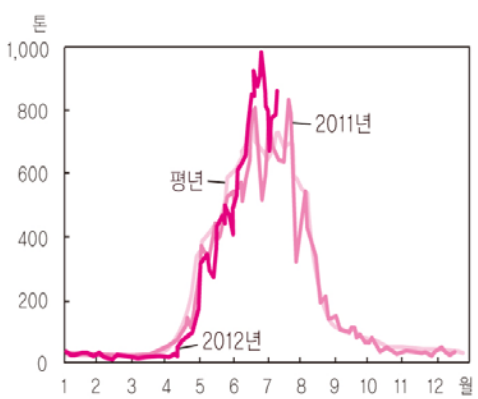
1,900원이었음. 2/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작년보다 7% 높으나, 평년보다 10% 높은 1만 2,700원 수준임. 가격이 낮았던 것은 2~3월 일조량 부족과 저온피해를 입은데다, 4월부터 기온 상승으로 기형과와 소과가 많고 상품성이 떨어져 시장 선호도가 낮았기 때문임.

- 2012년산 딸기 재배면적은 노령화, 토지 수용 등으로 2011년산 재배면적보다 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2012년산 생산량은 작년보다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생육 초기의 고온으로 인한 웃자람, 겨울철 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나빴기 때문임.
- 6월 중순 이후 2012년산 딸기 출하는 종료되었으며, 3/4분기에는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음.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식이 이루어져 11월부터 출하가 시작될 예정임.

5.5. 수박

【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수박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7~2011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반입량 감소 및 이른 더위에 의한 수요 증가로 4월, 5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8kg 한 개에 2만 3,700원, 1만 9,700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각각 29%, 44% 높은 수준으로 형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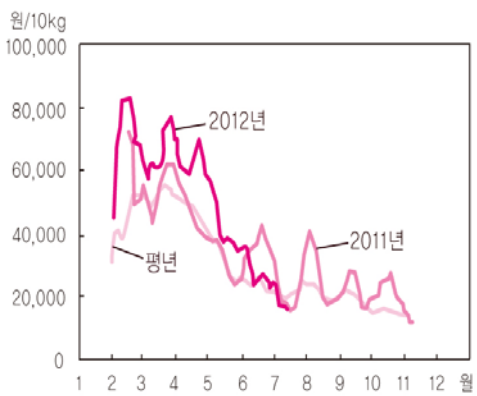
- 5월부터 지속된 기상양호로 6월 중순부터 반입량이 증가함.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8kg 한 개에 1만 3,400원으로 작년보다 12% 낮음.

● 3/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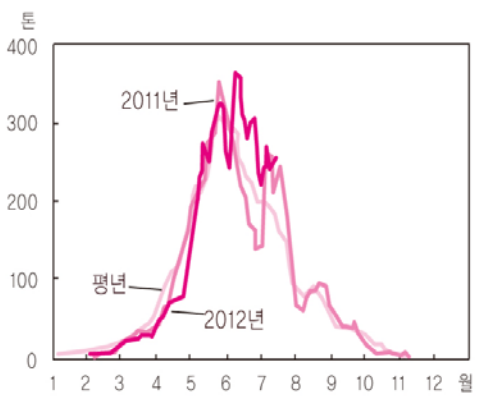
-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영남·충청지역의 4~5월 정식면적이 증가하고 전북 주산지의 노지수박 5월 정식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및 장마 후 폭염에 의한 고사, 병충해 등으로 단수가 낮았던 작년에 비해 금년 3/4분기 단수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출하면적 확대와 단수 증가로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7월 정식면적은 충청 주산지에서 확대될 것으로 조사됨. 8월 시설수박은 작년 강우피해로 재정식이 증가했던 충북 음성·진천 지역에서는 평년수준의 정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정식면적이 3%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5.6. 참외

【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참외 반입량 동향 】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7~2011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4분기 동향

- 2월 하순~3월의 저온 및 일조량 부족으로 초기 생육이 저하됨. 이 영향으로 반입량이 감소하여 4월, 5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6만 2,800원,

4만 1,800원으로 작년보다 34%, 32% 높았음. 6월 중순경부터 반입량이 작년대비 80%이상 늘면서 상품 10kg 상자에 2만 7,600원 수준으로 형성됨. 이는 작년대비 23%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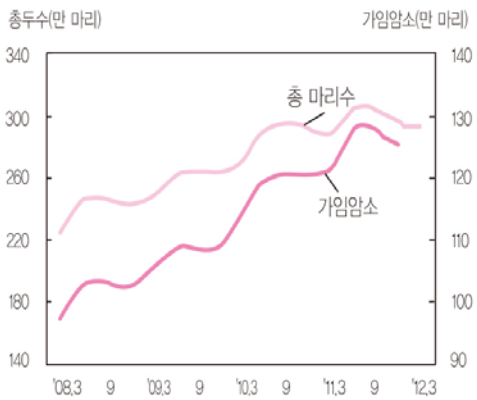
● 3/4분기 전망

- 주산지 일조량 증가 등 기상호조로 생육이 좋아 출하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단수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일부 대목의 생육불량으로 소폭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단수는 소폭감소하나, 출하면적이 확대되어 7~8월 출하량은 작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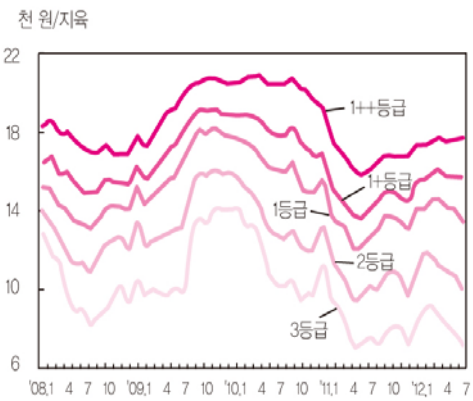
6.1. 한육우

【 한육우 사육 마리수 추이 】



자료: 통계청

【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육 동향 및 전망

- 가임암소 마리수 증가로 6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1.8% 증가한 311만 마리임.
- 도축 마리수 증가로 9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6월보다 감소하나 전년 304만 마리보다는 다소 많은 305~308만 마리 전망됨.

● 도매가격 동향 및 전망

- 할인행사에 따른 쇠고기 소비 증가로 4~6월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 12,391원보다 14.4% 상승하나 평년 14,689원보다 낮은 14,172원임.
- 비수기인 8월까지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2분기보다 하락한 12,500~13,500원 예상됨.
- 추석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9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8월보다 상승한 14,000~15,000원 전망됨.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우병준 연구위원(bjwoo@krei.re.kr), 이형우(lhw0906@krei.re.kr), 김원태(wtkim@krei.re.kr), 이정민(fantom99@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남경수(ksnam@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한육우 사육 마리수 및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

	2012. 6월(A)	9월(B)	B/A
사육 마리수	311만 마리	305~308만 마리	-1.9~-0.9%
1등급 가격 (지육kg)	4~6월 14,172원	7~9월 12,500~15,000원	-11.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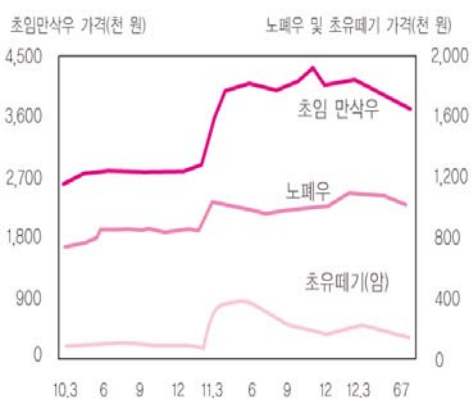
● 대책 방향

- 추석 이후 가격 약세에 대비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할인행사를 확대 추진하고 하반기 암소 도태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6.2. 젖소

【 젖소 사육 마리수 동향 】

【 젖소 산지가격 변동 】



● 사육 동향 및 전망

- 2012년 6월 젖소 사육 마리수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41만 마리임.
- 노폐우 도태 지연으로 사육 마리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젖소 산지가격 동향

- 초임만삭우: 7월(1~10일) 초임만삭우 가격은 2010년대비 34.3% 증가한 370만원(평년대비 39.8% 상승)

- 초유떼기(암송아지) 및 노폐우 : 초유떼기(암송아지)는 2010년대비 38.9% 상승한 15만 2천원(평년대비 22.2% 하락), 노폐우는 19.9% 상승한 101만원

● 유제품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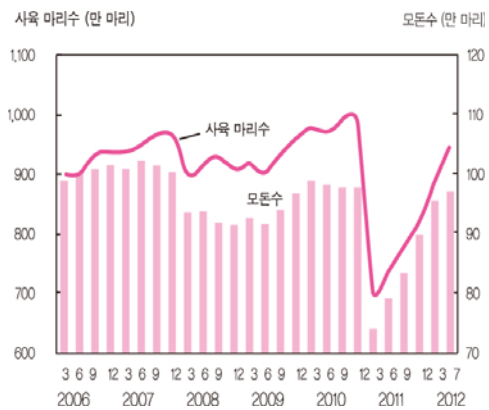
- 2012년 3~5월 유제품 수입량은 33만 2,351톤으로 전년대비 23.0% 감소됨.

● 원유 생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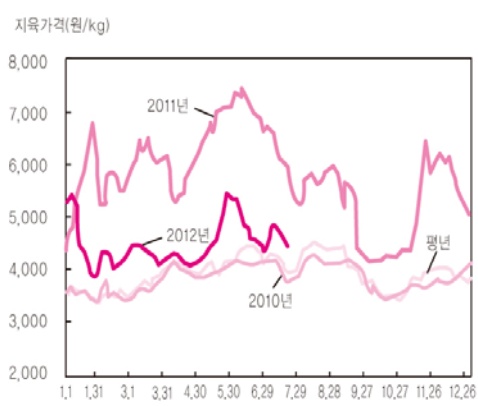
- 3~5월 원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12.0% 증가한 55만 3천톤임.
  ※ 구제역 발생 이전인 2010년 3~5월 대비 약 0.9% 증가됨.
  → 구제역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
- 노폐우 도태 지연으로 하반기 원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존재함.
- 3분기 원유 생산량은 51만 5천~52만 톤 전망됨.

6.3. 돼지

【 사육 마리수와 모돈수 추이 】



【 돼지고기 지육가격 동향 】



● 사육 동향 및 전망

- 재입식 농가 증가와 모돈수 회복으로 6월 사육 마리수는 전분기보다 7% 증가한 943만 마리였으며, 모돈수는 전분기보다 2% 증가한 97만 마리임.
- 9월 사육 마리수는 970~980만 마리로 전망됨.

【 돼지 사육 마리수 전망 】

2012. 6월(A)	2012. 9월(B)	증감률
943만 마리	970~980만 마리	2.7~3.8%

● 지육가격 동향 및 전망

- 돼지 지육가격은 돼지고기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도축 마리수 회복으로 공급량도 증가하여 7월 상순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음.
- 소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증가로 8월에도 돼지 지육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겠으며, 이후에도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8월 돼지 지육가격은 탕박 기준 kg당 4,500~4,700원, 9월은 4,000~4,300원으로 전망됨.

【 돼지 지육가격 전망 】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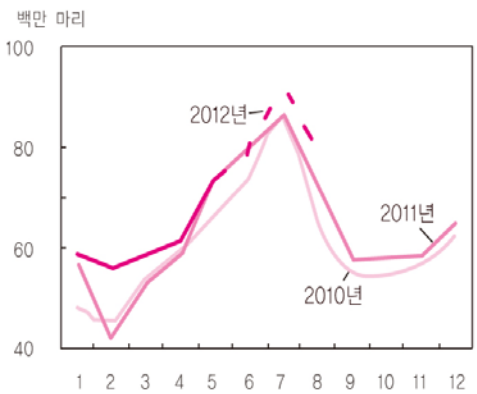
2012. 6월	2012. 7월	2012. 8월	2012. 9월
4,754	4,600~4,800	4,500~4,700	4,000~4,300

● 대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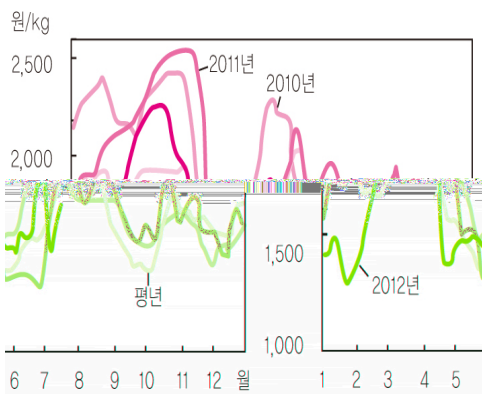
- 지속적인 불량 자돈 도태, 저능력 모돈 교체, 출하 체중 감소 등의 공급측면의 노력과 저지방 부위 소비 촉진 활동 등으로 4분기 지육가격 하락폭 축소 노력이 필요함.

6.4. 육계

【 도계 마리수 추이 】



【 육계 산지가격 동향 】



● 2/4분기 동향

- 5월까지 종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종계 생산성 향상으로 병아리 생산량은 증가하였음. 2012년 2분기 도계 마리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2% 증가한 2억 1,400만 마리로 추정됨.
- 2분기 환율이 강세를 보였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수준을 보였으나, 일부 기업의 수입업계 진출로 2분기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대비 10.0% 증가한 3만 7,742톤이었음.
- 육류 소비량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상쇄된 것으로 판단됨.
-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2012년 2분기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7.8% 하락한 1,663원/kg이었음.
- 복 절기가 다가오면서 산지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급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 전년보다는 낮은 수준임.

● 3/4분기 전망

- 5, 6월 종계 입식 마리수는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한 종계 입식 마리수의 영향으로 2012년 3분기 도계 마리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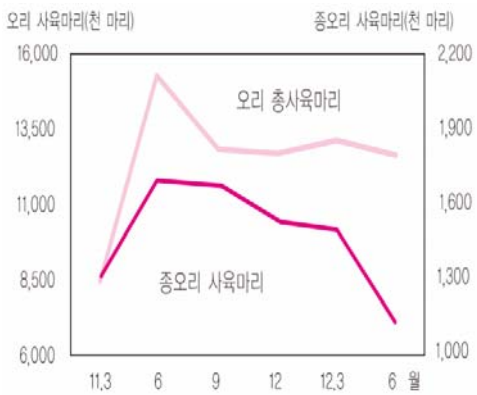
- 산지가격이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환율도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닭고기 수입업체 증가로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닭고기 최대 수요시기인 3분기(7, 8월)는 기후에 의해 수요가 변동할 것임. 일반적으로 장마가 끝나는 7월 말 이후 화창한 날씨가 지속된다면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공급량 증가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7월: 1,700~1,900원/kg, 8월: 1,600~1,800원/kg, 9월: 1,300~1,500원/kg).

● 대책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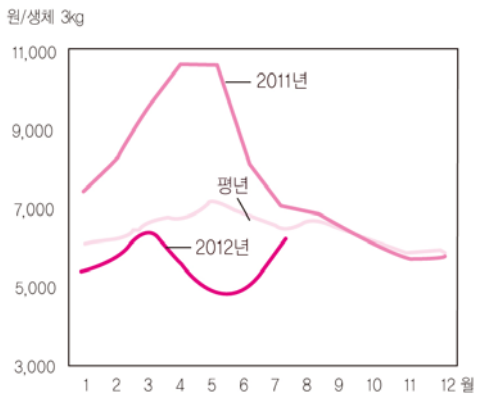
6.6. 오리

【 오리 사육 현황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오리 산지가격 동향 】



자료: 한국오리협회

● 사육 및 수급 동향

- 5월 도압 마리수는 1,026만 마리로 전년대비 35.2% 증가, 이후 업체의 자율적인 물량 조절로 6월 도압 마리수는 전년대비 6.7% 감소한 813만 마리로 추정됨.
- 7월부터 복절기 보양식 소비 증가로 가격 상승세로 전환

● 산지가격 동향 및 전망

- 7월(1~26일) 오리가격은 생체 3kg당 6,115원으로 전년대비 11.5% 하락함.
- 업계의 자율적인 물량 조절과 소비 증가로 8월 오리 평균가격은 6,400~7,000원/3kg으로 전망됨.

● 대책 방향

- 오리고기 비수기(9~11월)에는 오리가격 하락이 예상되므로 오리고기 소비를 증진시킬 대책이 필요함.

특 별 주 제

❶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실태와 시장전망

❷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실태 분석

【특별 주제 1】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실태와 시장전망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1. 서 론

● 정부는 DDA·FTA 등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농산물의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왔음.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0~2011년 사이 연평균 40% 이상 급속히 증가해 왔음.

● 정부는 친환경농식품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의 확충, 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였음. 이에 따라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전체 농산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서면서 틈새시장(niche market)에서 주류시장(mainstream market)으로 진입하였음.

● 한편, 정부는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2016년부터는 저농약인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따라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저농약농산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저농약농산물에서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재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친환경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유기와 무농약농산물의 판로확대와 가격차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요구되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changgil@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hak8247@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부 연구원(dhmoon0326@krei.re.kr)
**** 본고는 2012년 2월 발간된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실태와 시장전망」을 요약한 것임.

● 우리나라도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가족 건강을 위해 친환경농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특히 친환경농식품 소비를 통해 가족건강 증진을 경험한 소비자일수록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보다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들은 현재의 친환경농산물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저렴하면서도 신뢰성이 높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강한 구매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 연구는 친환경농식품의 생산 및 소비실태와 시장전망을 실시함으로써 정책담당자,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가공업자 등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실한 친환경농식품 발전을 위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됨.

2.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황

●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0년대 초반까지 매년 122.7%의 급증세를 보였고, 최근 5년(2007~2011년) 동안에는 12.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유기와 무농약이 전년보다 각각 24.5%, 0.8% 증가하였지만 저농약이 30.8% 감소함에 따라 전년보다 1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

구 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감률 (%)
유기	농가수(호)	353	7,167	7,507	8,460	9,403	10,790	13,376	39.1
	면적(ha)	296	8,559	9,729	12,033	13,343	15,517	19,312	46.2
	출하량(톤)	6,538	95,405	107,179	114,649	108,810	122,243	190,912	35.9
무농약	농가수(호)	1,060	21,656	31,540	45,089	63,653	83,136	89,765	49.7
	면적(ha)	876	18,066	27,288	42,938	71,039	94,533	95,253	53.2
	출하량(톤)	15,694	320,309	443,989	554,592	879,930	1,039,576	915,823	44.7
저농약	농가수(호)	1,035	50,812	92,413	119,004	125,835	89,992	57,487	44.1
	면적(ha)	867	48,371	85,865	119,136	117,306	83,956	58,109	46.6
	출하량(톤)	13,174	712,380	1,234,706	1,519,070	1,369,034	1,053,702	712,493	43.7
계	농가수(호)	2,448	79,635	131,460	172,553	198,891	183,918	160,628	46.3
	면적(ha)	2,039	74,995	122,882	174,107	201,688	194,006	172,674	49.7
	출하량(톤)	35,406	1,128,093	1,785,874	2,188,311	2,357,774	2,215,521	1,819,228	43.1
경지면적(ha)		1,888,765	1,800,470	1,781,579	1,758,795	1,736798	1,715,301	1,698,040	−0.9

주: 2011년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잠정치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 2011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 출하량을 보면, 유기 190,912톤(10.5%), 무농약 915,823톤(50.3%), 저농약 712,493톤(39.2%)로 무농약이 처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품목류별로 보면 곡류 404,825톤(22.3%), 과실류 433,346톤(23.8%), 채소류 701,894톤(38.6%) 등으로 채소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품목별·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2011) 】

단위: 톤, %

구 분	곡류	과실류	채소류	서류	특작류	기타	전체
유 기	91,435	7,589	53,643	4,287	6,200	27,758	190,912
	(22.6)	(1.8)	(7.6)	(7.6)	(3.30)	(74.7)	(10.5)
무농약	254,453	36,669	394,085	46,205	176,834	7,577	915,823
	(62.9)	(8.5)	(56.1)	(82.0)	(95.2)	(20.4)	(50.3)
저농약	58,937	389,088	254,166	5,841	2,629	1,832	712,493
	(14.6)	(89.8)	(36.2)	(10.4)	(1.4)	(4.9)	(39.2)
합 계	404,825	433,346	701,894	56,333	185,663	37,167	1,819,22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유형별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 전체 경지면적 중 친환경농업 인증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28.9%, 경남 7.6%, 경북 7.3% 등인 데 반해 경기 4.3%, 제주도 4.3%로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의 친환경농업육성 전략에 따라 지자체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011) 】

단위: 호, ha, 톤, %

구 분		유기	무농약	저농약	계	인증면적 비중	경지면적 비중
경기	농가수	1,189	4,015	2,442	7,646	4.4	4.3
	면적	1,983	3,231	2,387	7,601		
	출하량	90,264	72,205	30,924	193,393		
강원	농가수	1,093	3,561	1,200	5,854	4.6	7.3
	면적	1,976	4,899	1,088	7,963		
	출하량	14,774	33,044	17,899	65,717		
충북	농가수	840	2,620	2,049	5,509	3.0	4.4
	면적	928	2,289	1,899	5,116		
	출하량	11,547	47,032	32,103	90,682		
충남	농가수	1,571	2,776	5,256	9,603	9.2	6.9
	면적	1,835	3,491	10,627	15,953		
	출하량	13,324	26,477	64,205	104,006		
전북	농가수	1,127	5,088	3,036	9,251	6.2	5.3
	면적	1,893	5,339	3,415	10,647		
	출하량	11,654	33,846	64,588	110,088		
전남	농가수	3,930	55,612	20,559	80,101	50.9	28.9
	면적	5,983	63,283	18,551	87,817		
	출하량	22,481	538,438	173,763	734,682		
경북	농가수	2,129	7,142	13,724	22,995	11.7	7.3
	면적	1,886	5,726	12,497	20,109		
	출하량	11,990	84,065	231,584	327,639		
경남	농가수	1,097	6,288	7,397	14,782	6.9	7.6
	면적	1,281	4,274	6,327	11,882		
	출하량	7,679	50,967	68,183	126,829		
제주	농가수	226	872	254	1,352	1.5	4.3
	면적	1,262	1,079	190	2,531		
	출하량	5,045	8,713	1,955	15,713		
합계	농가수	13,376	89,765	57,487	160,628	100.0	10.17
	면적	19,312	95,253	58,109	172,674		
	출하량	190,912	915,823	712,493	1,819,228		

주: 광역시의 자료는 '합계'에 포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통계청

3. 친환경농식품의 구매패턴과 소비성향

3.1. 조사개요

3.1.1. 친환경농산물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성향과 구매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조사기간: 2011. 12. 30~2012. 1. 6). 조사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구입경험자 421명, 비경험자 105명 등 총 526명으로 하였음.

● 조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연령은 20대가 44명(8.4%), 30대가 237명(45.1%), 40대가 179명(34.0%), 50대 이상이 66명(12.6%)으로 30~40대가 79.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72.5%, 고졸이하가 27.5%를 차지함.

●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7.6%, 200만원대 19.0%, 300만원대 27.9%, 400만원대 23.8%, 500만원 이상이 21.7%임. 조사대상자의 주부유형은 전업주부가 46.6%를 차지하였으며, 미취학 또는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 69.2%로 대부분이었음. 응답자의 성장지역은 대도시 출신이 68.3%로 많았으며, 농촌 출신은 7.0%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3.1.2. 친환경농가공식품

● 친환경농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성향과 구매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조사기간: 2011. 12. 30~2012. 1. 6). 조사대상자는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경험자 413명, 비경험자 105명 등 총 518명임.

● 조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연령은 20대가 42명(8.1%), 30대가 232명(44.8%), 40대가 179명(34.6%), 50대 이상이 65명(12.6%)으로 30~40대가 73.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73.7%, 고졸이하가 26.3%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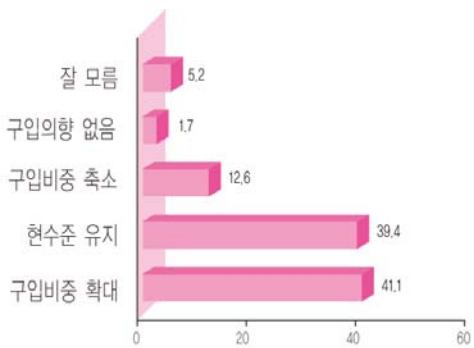
●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7.3%, 200만원대 17.4%, 300만원대 28.2%, 400만원대 24.7%, 500만원 이상이 22.4%를 차지하였음. 조사대상자의 주부유형은 전업주부가 47.1%를 차지하였으며, 미취학 또는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 80.2%로 대부분이었음.

3.2.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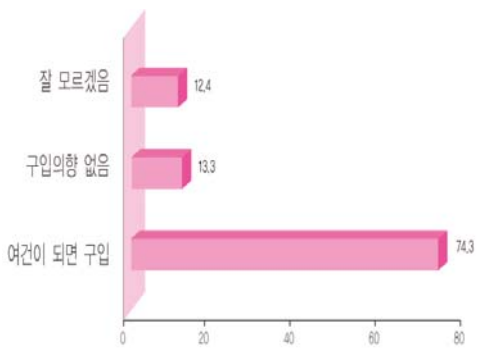
●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의향을 조사한 결과 구입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향후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친환경농산물 구매경험자의 41.1%, 비구매경험자의 74.3%, 친환경농가공식품의 경우 구매경험자의 52.3%, 비구매경험자의 77.1%가 소비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소비자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경우 잠재적 소비량이 상당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음.

【 향후 친환경농산물 소비의향 】

<구매 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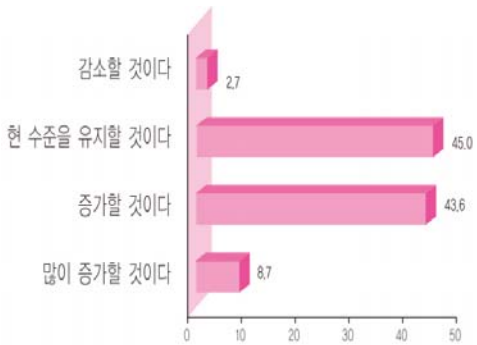


<구매 비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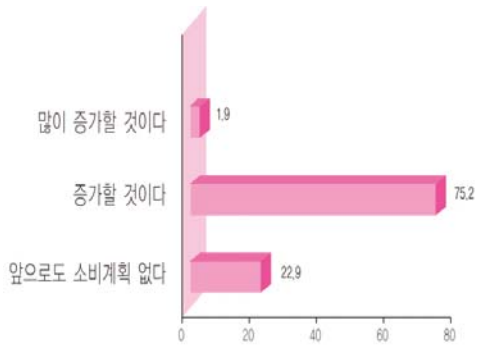


【 향후 친환경농가공식품 소비의향 】

<구매 경험자>



<구매 비경험자>



●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가공식품 모두 '가격 인하'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고, 적당한 구입처, 인증제도의 개선 등을 그 다음으로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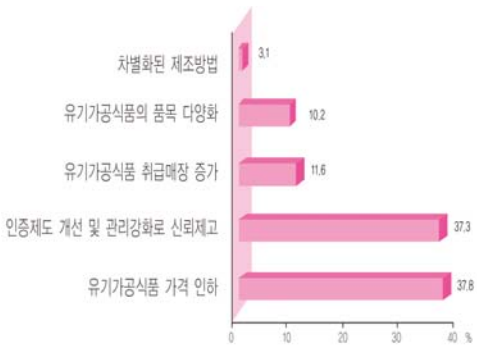
【 친환경농산물 구입 애로사항 】

<구매 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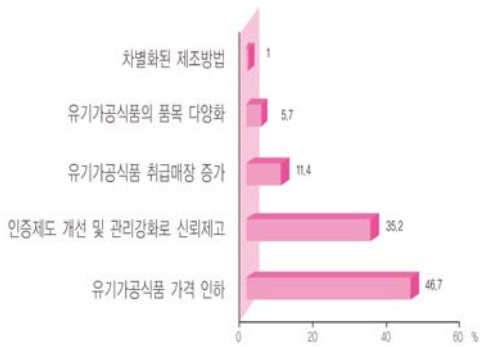
<구매 비경험자>

【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확대 위한 필요사항 】

<구매 경험자>



<구매 비경험자>



● 구입경험자의 유기농산물의 가격 프리미엄은 51~79%, 적정 프리미엄은 37~52%로 나타났고,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프리미엄은 100%, 적정 프리미엄은 50%로 나타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친환경농식품의 가격이 소비자의 지불의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유기농산물은 약 20%정도, 유기가공식품은 약 50% 정도 가격 프리미엄을 떨어뜨린다면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구입비경험자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29%, 유기가공식품 60% 정도 가격 프리미엄을 떨어드린다면 구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시장구입가격 및 적정가격 】

단위: 원

구 분		현재가격				적정가격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구입 경험자	곡류	1,783	(178)	1,481	(148)	1,517	(152)	1,441	(144)
	엽채류	1,591	(159)	1,504	(150)	1,372	(137)	1,317	(132)
	과채류	1,785	(179)	1,507	(151)	1,476	(148)	1,416	(142)
	과실류	1,506	(151)	1,693	(169)	1,497	(150)	1,381	(138)
평 균		1,666	(167)	1,546	(155)	1,466	(147)	1,388	(139)
비구입자		1,694(169)				1,395(140)			

주: ( )는 일반농산물을 100으로 했을 때의 친환경농산물 가격지수를 나타냄.

【 국산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향후 지불의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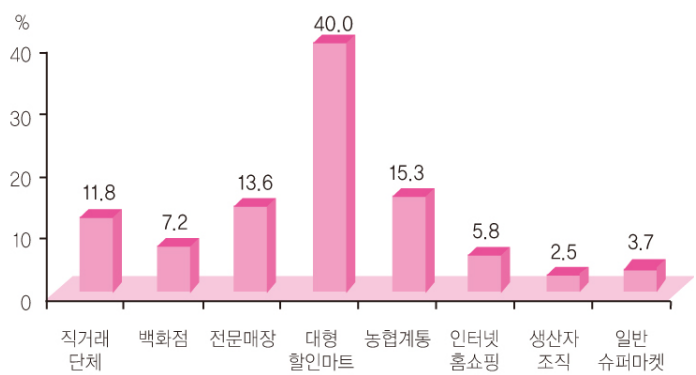
단위: 원

구 분	일반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구매 경험자(A)	구매 비경험자(B)	A-B
쌀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1,000	1,578	1,481	97
밀가공식품(밀가루, 면류, 빵류 등)		1,500	1,349	151
유아식 / 분유		1,693	1,610	83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찌 등)		1,540	1,350	190
조미양념류(조미류, 장류, 기름류 등)		1,538	1,390	148
다류(녹차, 둥글레차 등)		1,428	1,456	△28
음료류(사과쥬스, 포도즙, 양파주스 등)		1,444	1,356	88
과자류(쿠키, 스낵, 시리얼 등)		1,391	1,320	71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1,463	1,323	140
평 균		1,508	1,404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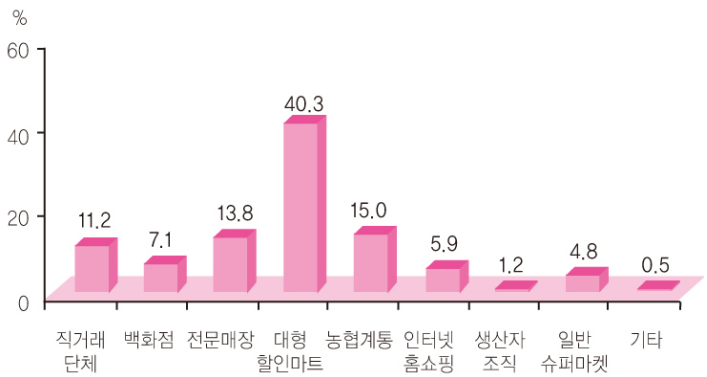
자료: 정학균·장정경(2011)

● 친환경농식품 구입장소로 친환경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대형할인점이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입장소를 선택하는데 있어 소비자들은 구입의 편리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마케팅 전략을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지향적으로 바꿔야 함을 시사함.

【 친환경농산물 주요 구입장소(구매 경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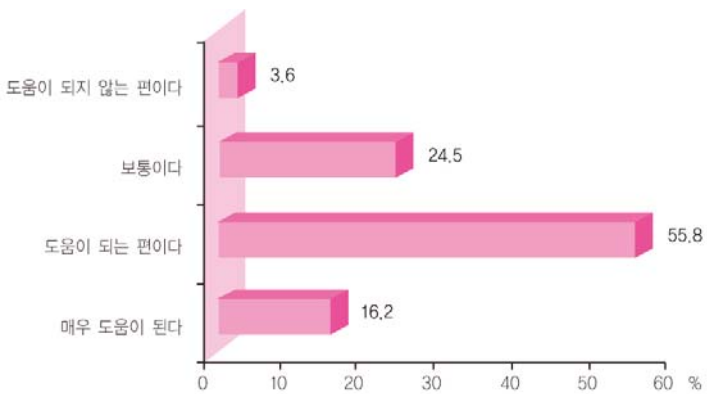


【 주요 구입장소(구매 경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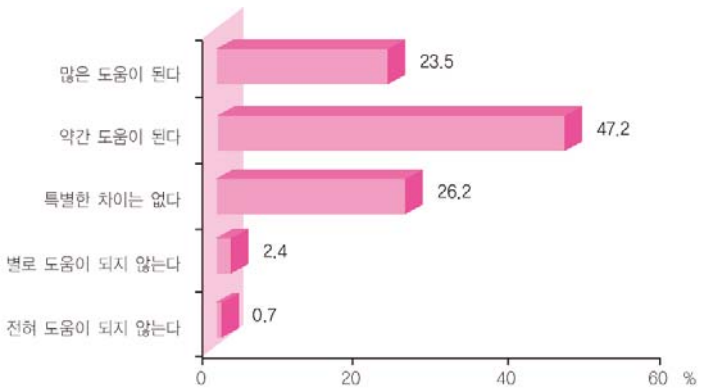


● 가족 건강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72.0%, 친환경농가공식품의 경우 70.7%로 높게 나타났음. 순위형 로짓분석 결과에서 건강증진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향후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친환경농식품의 가족건강 증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부각시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구매 후 건강증진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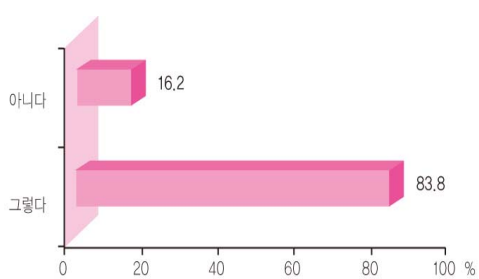
【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후 건강증진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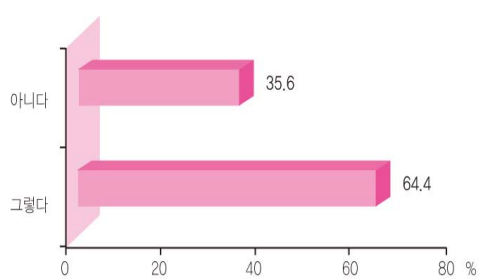
● 소비자들은 유기가공식품 구매 시 83.8%가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64.4%가 식품첨가물을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인증기관의 책임성과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기관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시 '인증마크' 및 '식품첨가물' 확인 여부 】

<인증마크>



<식품첨가물 사용>



4. 국내 친환경농식품의 시장규모 및 전망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친환경 농법별 재배면적에 단수를 적용하여 생산량을 추정하고 농법별로 시장으로 판매되는 양을 추정한 후, 유통업체의 수수료, 유통비용,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하였음.

● 2011년 기준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 추정결과 곡류의 유통규모는 약 1조 336억 원으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의 3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중에서 쌀이 7,546억 원으로 추정되었음. 또한 채소류는 9,364억 원으로 전체 유통규모의 28.7%를 차지하였고, 과실류는 전체 유통규모의 21.9%인 7,152억 원으로 뒤를 이었음.

● 따라서 2011년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규모는 2010년보다 3.8% 감소한 3조 2,6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시장규모가 과거의 추세와 달리 감소한 이유는 저농약 인증 생산량이 201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인증이 보다 강화되었기 때문임.

【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2011) 】

단위: 억원, %

구 분	곡 류	쌀	채소류	과실류	서류	특작기타	계
유통규모	10,336	7,546	9,364	7,152	1,390	4,360	32,602
비중(%)	31.7	23.1	28.7	21.9	4.3	13.4	100.0

주: 2011년도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하량 잠정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2012)

● 2012년의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11년 대비 13% 정도 증가한 3조 6,800억 원으로 전망됨. 저농약인증 농산물의 시장규모가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의 꾸준한 증가로 시장규모

는 2013년 3조 9,845억원, 2015년 4조 8,329억원으로 늘어나며,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 시장 거래액의 약 20%인 6조 9,000억원 될 것으로 전망됨.

【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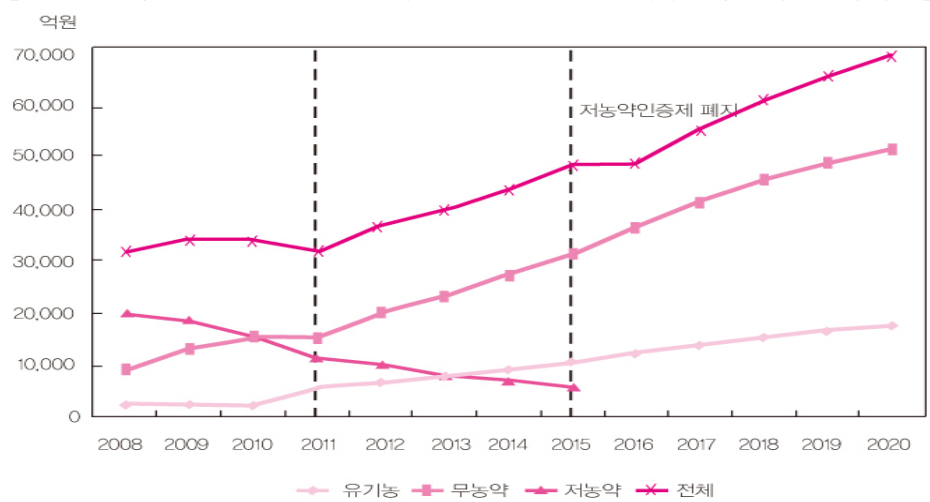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 분		2008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20
곡 류		7,751	9,216	10,336	12,180	14,116	18,785	23,712	29,684
	쌀	7,218	7,998	7,546	8,844	10,163	13,381	16,724	20,936
	기타	533	1,218	2,789	3,337	3,953	5,404	6,988	8,748
채소류		8,386	12,046	9,364	10,450	11,097	13,070	14,650	18,340
과실류		4,195	7,641	7,152	7,308	6,530	5,445	2,741	3,431
서 류		1,144	1,005	1,390	1,644	1,915	2,566	3,262	4,084
특작·기타		3,143	3,966	4,360	5,218	6,185	8,464	10,949	13,706
총 계		24,619	33,874	32,602	36,800	39,845	48,329	55,313	69,246

주: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종류별로 증가율이 체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음. 2012년 이후 저농약인증 농산물 중 무농약인증 진입은 15% 내외, 2016년에는 20~35%로 가정하여 전망하였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2016년 이후 저농약 폐지시) 】



주: 저농약인증의 경우 2010년부터 신규인증 중단, 2016년 이후 저농약인증제 완전 폐지를 적용함.

● 국산 원료 국내생산 가공식품 시장의 경우 유기면적 재배면적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수입산의 경우는 국산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식품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증가하는 추세가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유기가공식품은 2011년 3,777억 원, 2015년 5,781억 원, 2020년 6,817억 원으로 추정되었음. 이 가운데 국내생산 유기가공식품은 2011년 3,219억 원, 2015년 4,937억 원, 2020년 5,867억 원으로 추정되었음.

【 유기가공식품의 시장규모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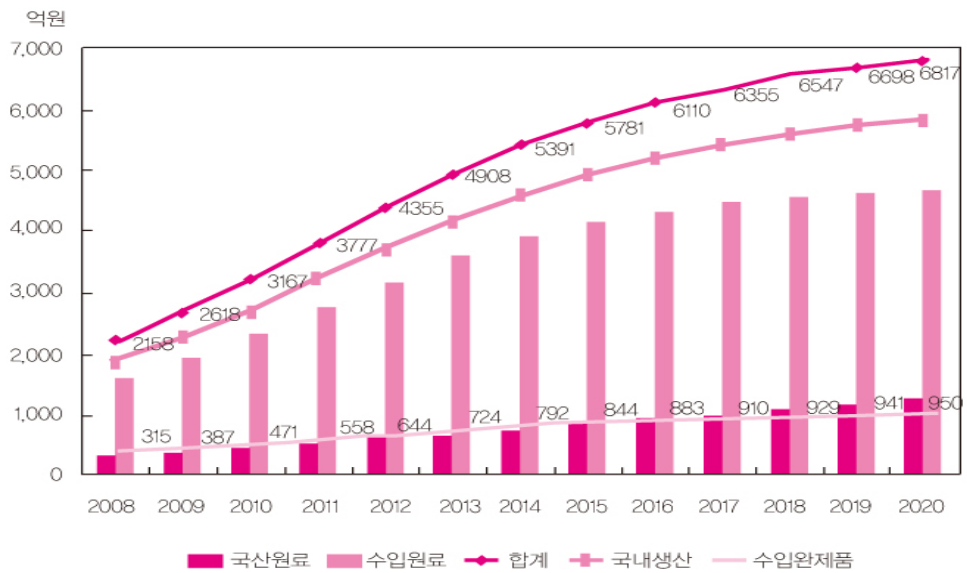
단위: 억원

	2008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20
합계	2,158	3,167	3,777	4,355	4,908	5,781	6,355	6,817
국내생산	1,843	2,696	3,219	3,712	4,184	4,937	5,445	5,867
(국산원료 전체)	296	382	480	549	626	790	977	1,203
(수입원료 전체)	1,547	2,314	2,739	3,162	3,558	4,147	4,468	4,663
수입완제품	315	471	558	644	724	844	910	950

주: 국내생산의 국산원료는 유기재배면적의 증감률을 적용하였으며 유기재배면적의 전망치는 2020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의 20%를 보급한다는 목표 하에 추정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 유기재배면적의 전망치는 2020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의 20%를 보급한다는 목표 하에 도출하였다.

【 유기가공식품의 시장규모 전망 】



5. 정책적 시사점

- 저농약 인증 폐지라는 제도적 변화로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인증실적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저농약 인증농가의 신속한 유기와 무농약 인증 전환 및 유기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 인증실적을 보면 지자체별로 친환경농업육성 전략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므로 지역단위에서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중요한 관건임. 더 나아가 지역적 특색에 맞는 품목과 브랜드 발굴을 통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육성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가격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는 생산 및 유통부문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친환경직불제의 단가를 상향조정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자재지원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는 연차별 차등 지급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논 농업을 예로 들면 유기재배의 경우 1~2년차(1단계)는 60~70만원, 3~4년차(2단계) 50~60만원, 5년차 이후(3단계)는 30만원 수준에서 10년간 지급토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필요가 있음. 친환경농산물 상당량이 생협, 직거래 등 폐쇄적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개별 단체를 통한 유통은 고비용, 고가격 구조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하기 때문임.
- 유기농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업체 생산 및 유통의 규모화와 효율화가 필요함. 특히 유기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이 대단지에서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여 유기농식품 클러스터(또는 유기농 푸드밸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친환경농식품 인증마크가 새겨져 있지만 오히려 일반 농식품보다 위해물질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안전성이나 웰빙 때문에 친환경농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따라서 인증기관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품목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국산 유기가공식품업체는 일반 가공식품의 아이템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겠지만 소비에 있어 유기가공식품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품목류(유아식/분유, 쌀가공식품 등)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젊은 연령층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친환경농식품의 구색을 갖추어 줌으로써 일괄구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구입의 편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대형할인마트에 친환경농식품 혹은 유기농식품 전문판매코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설문조사 결과,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급식재 활용에 대해 10% 정도를 초과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생들의 소비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으로 지속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식품의 건강과의 관계성 및 환경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식품 홍보전략 수립 시 친환경농식품과 건강과의 관계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식품의 환경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내외적으로 친환경농식품 생산은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환경 질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향후 친환경농식품 시장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유기가공품의 원료로 유기농산물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친환경농식품의 소비활성화와 수입유기농산물 증가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6. 참고 문헌

강충관 외 8인. 2005.「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김창길·김태영·서성천. 2005.「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 연구보고 R5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외 3인. 2005.「친환경농업의 경제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C2005-5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김태영·이상건. 2007.「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농정연구속보 제41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이용선·이상건. 2008.「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성향과 마케팅 전략」. 연구보고서 P 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외 3인. 2010.「2010년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충실·이상호. 2009.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와 유통업자의 구매의향 비교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7(3): 291-306.

김태영·장우환. 2011. "친환경농산물 구매 및 소비행태 분석-대구광역시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9(2): 145-156.

닐슨컴퍼니코리아. 2011.「국내·외 유기식품 산업 현황 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성훈. 2008.「유기식품 시장동향 2008」.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의약안정청. 2011.「수입식품등검사연보」.

안병렬. 2005.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구매행태 특성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3(3).

오호성 외 8인. 2000.「저투입 환경농산물의 수요개발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덕기. 2008. "친환경유기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6(4): 391-408.

유덕기. 2011. "유기농마케팅조직의 성공사례 및 성공요인 연구."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9(2): 157-184.

이종성. 2001.「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와 소비자 의향분석」.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전형진·권태진·남민지. 2010.「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현황과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정만철. 2006.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생산·유통현황". 「농업경영정보」 2006-4. 농촌진흥청.

정학균·장정경. 2011.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실태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P 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윤미 외 4인. 2006. 「유기식품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인식도 조사」. 연구결과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업전망 2012」. 연구보고서.

허승욱·김호. 2003. "수도권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소비실태 분석과 소비확대 전략."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1(4): 15-37.

허승욱·김호. 2010.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속성별 만족도 및 요인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8(1): 41-53.

황재현. 2009.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유통·소비시장 현황 분석-가격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7(3): 329-345.

Catherine Greene et al., "Emerging Issues in the U.S. Organic Industry", USDA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umber 55, June 2009.

IFOAM. 2010.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IFOAM. 2011.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日本 農林水産省. 2010. 「年度別有機農産物等の格付實績」

日本 農林水産省. 2011. 「年度別有機農産物等の格付實績」

<인터넷 웹사이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특별 주제 2】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실태 분석*

이명기*

1. 쇠고기·돼지고기 유통 개요

●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유통경로 및 참여주체는 매우 다양함. 산지단계 유통참여자는 축산농가, 산지조합, 수집반출상, 가축시장 등이 있으며, 도축 및 가공단계에서는 도매시장, 공판장, 일반도축장, 축산물종합처리장, 육가공업체, 중간유통업체 등이 있음. 소비지단계에서는 대형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일반정육점, 정육식당,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소비자 등이 있음.

● 축종별 유통경로 및 유통경로별 비중은 조사시점과 조사기관의 조사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생축 출하단계에서는 한우의 경우 산지조합의 역할이 매우 크며, 돼지의 경우 육가공업체의 역할이 매우 큼. 소매단계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쇠고기의 주요 유통경로는 ① 한우농가 → (우시장) → 수집반출상 → 도축장(임도축·경매) → (육가공업체) → 소매점, ② 한우농가 → 산지조합 → 도축장(임도축·경매) → (육가공업체) → 소매점, ③ 한우농가 → 도축장(임도축·경매) → (육가공업체) → 소매점임.

● 돼지고기의 주요 유통경로는 ① 돼지농가 → 육가공업체(도축·가공) → 소매점, ② 돼지농가 → 산지조합 → 도축장(임도축·경매) → 육가공업체 → 소매점, ③ 돼지농가 → 수집반출상 → 도축장(임도축·경매) → 육가공업체 → 소매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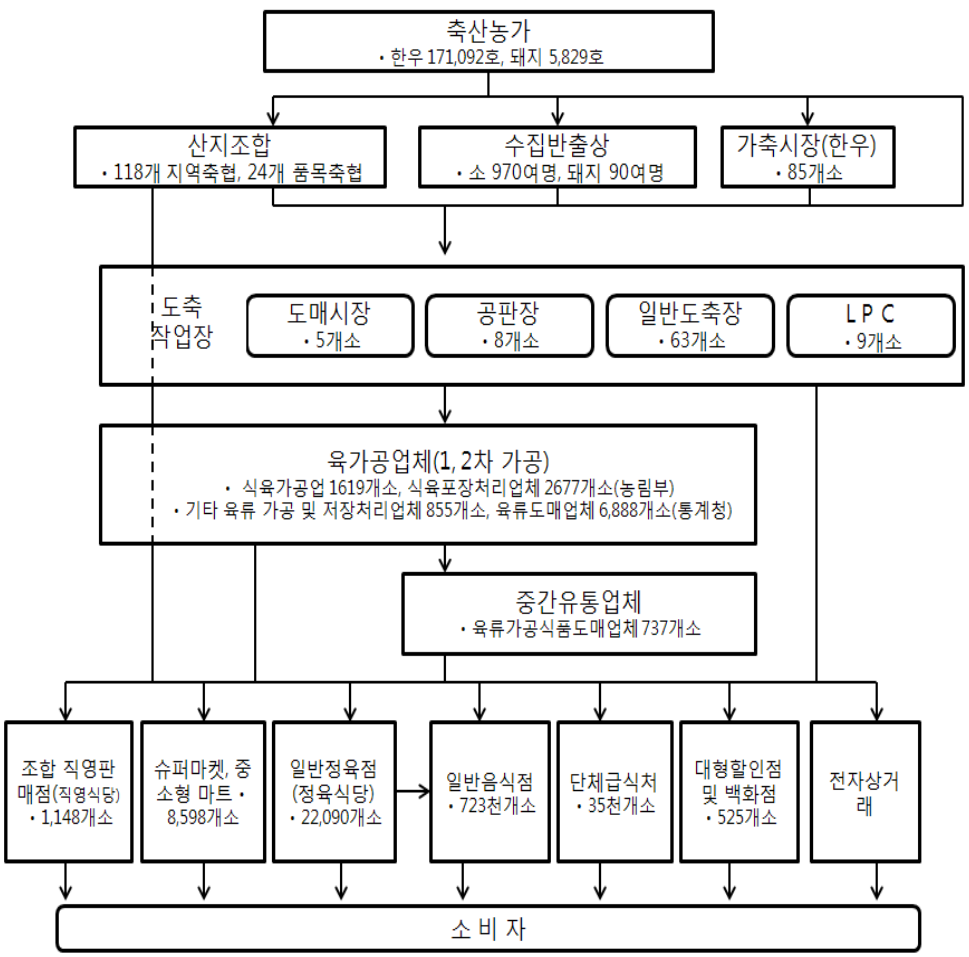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위원(mklee@krei.re.kr)

** 본고는 2011년 12월 발간된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실태 분석 및 개선과제」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경로 상에 참여하는 유통주체별 현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쇠고기·돼지고기 유통경로 및 유통주체 】



● 한우와 돼지고기의 유통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의 축산물 유통주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는 2011.7~9월에 이루어졌으며, 면접조사는 연구협의회와 출장조사를 통하여 연중 실시함.

【 축산물 유통주체별 설문조사자 수 】

축산물 유통주체	설문조사자 수(명)	조사협조기관
한우농가	551	전국한우협회
돼지농가	451	대한양돈협회
산지조합	45	농협중앙회
도축작업장	58	축산물품질평가원
육가공업체	45	자체조사 및 위탁조사
정육점	331	축산기업중앙회
대형할인점 및 SSM	3	자체 조사
소비자	590	자체 조사

2. 한우 및 양돈 농가 유통실태

2.1. 한우농가

● 한우농가는 산지조합 위탁판매를 통하여 출하하는 비중이 35.1%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직접 출하(31.6%), 산지조합 계약 판매(11.4%) 순임.

●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로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직접 출하가 응답률 51.4%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는 산지조합 위탁판매(21.2%) 순이었으며, 부분육 가공업체나 대형할인점 등 거래처로의 직접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16.2%)도 많았음.

● 한우농가가 산지조합이나 수집반출상을 이용하지 않고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경로 6)의 주요 거래처는 일반정육점 및 정육식당이었으며, 그 다음이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이었음. 향후 직접 판매 확대 희망 거래처 비중 역시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정육점은 낮았음.

【 한우 농가의 유통경로 비중 및 확대 필요 경로 】

단위: %

	유통경로 비중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응답률)
경로 1: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직접 출하	31.6	51.4
경로 2: 산지조합 위탁 판매	35.1	21.2
경로 3: 산지조합 계약 판매	11.4	15.1
경로 4: 민간계열업체, 도축장 판매	4.7	5.8
경로 5: 수집반출상 (위탁)판매	3.3	1.8
경로 6: 거래처 직접 판매	7.9	16.2
경로 7: 우시장(가축시장) 판매	4.9	9.4
경로 8: 기타	1.0	0.7
합 계	100.0	

주: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 한우농가가 출하경로를 선택할 때, 산지조합과 공판장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41.5%)', '가격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39.1%)', '거래처 선정 및 대금 정산 등의 편리성 때문(37.7%)'이었음. 한우농가가 산지조합과의 계약 판매를 확대하는데 있어 주요 고려 사항으로는 조합의 안정적인 가격 보장과 조합의 안정적인 소비지 판매처 확보 능력을 지적하였음.

● 한우농가는 어떤 유통경로이던 안정된 가격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대금 정산의 편리성을 주요하게 고려하였으며, 특히 산지조합과 계약 판매 시 조합의 판매처 확보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2.2. 양돈농가

● 양돈농가의 유통경로는 한우농가와 비슷하지만 한우와 달리 산지 가축시장을 통한 판매가 없음. 양돈농가 조사 결과,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판매를 통하여 돼지를 출하하는 비중이 36.4%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직접 출하(20.9%), 산지조합 위탁판매(18.3%), 그리고 산지조합 계약판매(15.5%) 순이었음.

●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로는 산지조합 계약판매(경로 3)와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직접 출하(경로 1)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음. 반면 양돈농가의 출하비중이 가장 큰 계열화된 육가공업체와 거래(경로 4)를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양돈농가가 산지조합이나 공판장을 이용하지 않고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경로 6) 주요 거래처는 부분육 가공업체이었으며,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일반정육점, 슈퍼마켓 등의 비중은 낮았음. 향후 직접 판매 확대 희망 거래처 비중 역시 부분육 가공업체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등과의 직거래 비중도 현재보다는 높게 나타났음.

【 양돈농가의 유통경로 비중 및 확대 필요 경로 】

단위: %

	유통경로 비중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응답률)
경로 1: 도매시장 및 공판장 직접 출하	20.9	23.9
경로 2: 산지조합 위탁 판매	18.3	19.7
경로 3: 산지조합 계약 판매	15.5	46.8
경로 4: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판매	36.4	18.1
경로 5: 수집반출상 (위탁)판매	3.9	1.1
경로 6: 거래처 직접 판매	3.1	4.3
경로 7: 기타	1.9	0.5
합 계	100.0	

주 1. 2011년 7~8월에 대한양돈협회에 의뢰하여 451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확대경로에 대해 복수 응답 허용,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 양돈농가가 출하경로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56.5%)', '거래처 선정 및 대금 정산 등의 편리성 때문에(43.3%)', '대량으로 가축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30.0%)' 순임. 산지조합과의 계약 판매(경로 3)를 확대하는 데 있어 양돈농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조합의 안정적인 가격 보장과 조합의 안정적인 소비지 판매처 확보 능력이었음.

3. 산지조합

● 산지조합의 축산물 유통 관련 사업은 크게 수탁사업과 매취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한우의 경우 농가의 수탁 경매사업의 비중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매취사업의 비중도 34.1%로 높았음. 돼지의 경우 매취사업 비중이 4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수탁 중개사업, 수탁 경매사업 순이었음.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생축 유통경로로는 한우 및 양돈부분 모두 매취사업을 지적하였음.

【 산지조합의 한우 및 돼지 유입경로별 비중 】

단위: %

구 분	사업 비중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비중)	
	한우	돼지	한우	돼지
1경로: 수탁사업(경매)	52.5	20.7	18.2	6.3
2경로: 수탁사업(중개)	13.3	35.3	13.6	18.8
3경로: 매취사업(자가 도축)	0.0	24.6	4.5	12.5
4경로: 매취사업(임도축)	34.1	18.9	59.1	56.3
5경로: 지육·부분육 구매	0.1	0.5	4.5	6.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 비중은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 산지조합의 한우 도축 후 지육 반출 경로는 한우 수탁 중개사업의 경우 모두 부분육 가공업체로 대부분 반출되었으며, 매취사업의 경우 자체부분육가공장으로 반출 비중이 높았음. 돼지 수탁 중개사업의 경우도 부분육 가공업체로 대부분 반출되었고, 매취사업의 경우 자체 부분육 가공장으로의 반출 비중이 높았음. 도축 후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를 위해 향후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로 산지조합의 대부분이 직영판매점 및 직영식당을 제시하였음.

【 산지조합의 도축 후 지육 반출 경로 】

단위: %

구 분		한우		돼지		
		수탁	매취	수탁	매취	
		중개	임도축	중개	자체 도축	임도축
도축 ↓ 지육	부분육 가공업체	95.9	26.2	100.0	–	4.0
	자체 부분육가공	4.1	58.1	–	100.0	95.7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	7.1	–	–	–
	직영판매점(직영식당)	–	6.3	–	–	0.3
	일반정육점(정육식당)	–	1.1	–	–	–
	기타1	–	1.2	–	–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산지조합이 농협중앙회의 안심한우사업단으로 중개하는 물량은 산지조합과 농협중앙회를 동일 사업체로 보아 '자체 부분육 가공'으로 봄.

【 산지조합의 자체 부분육 가공 후 유통경로 】

구 분		경로별 비중(%)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응답률,%)	
		한우	돼지	한우	돼지
자체 부분육 가공 ↓ 부분육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15.6	36.8	4.3	12.5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17.0	10.7	0.0	0
	직영판매점(직영식당)	49.7	9.3	69.6	75
	일반정육점(정육식당)	0.3	19.8	4.3	0
	일반음식점	1.4	10.8	4.3	12.5
	단체급식처	12.5	6.2	26.1	18.8
	전자상거래	2.3	0.0	4.3	0
	2차 육가공업체	0.5	4.9	0.0	0
	기 타	0.7	1.5	8.7	0
합 계		100.0	100.0	-	-

주: 가장 확대해야 할 경로는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 산지조합의 자체 부분육 가공 후 반출경로를 살펴보면, 한우의 경우 직영판매점 및 직영식당의 비중이 49.7%로 가장 많고, 돼지의 경우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으로의 판매 비중이 36.8%로 가장 많았음. 향후 확대해야 할 부분육 유통경로에 대해 대부분 지역 내 직영판매점 및 직영식당을 지적하였음. 산지조합의 대부분이 조합원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조합은 생축의 구매, 도축, 판매 기능을 확보하여 지역단위의 계열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통비용 조사결과, 한우 수탁 경매사업의 경우 산지조합이 농가로부터 수취하는 조합수수료는 경락가격의 0.1~0.5%이며, 보통 0.2%~0.3%가 가장 많았음. 경우에 따라서는 두당 2,000원을 조합수수료로 수취하는 조합도 있었음. 돼지의 경우 조합수수료는 경락가격의 0.1~0.3%였으며, 두당 600~1,000원을 조합수수료로 수취하는 조합들도 있었음. 두당 운송비는 한우가 평균 80,000원, 돼지가 7,500원이었으며, 모두 농가가 부담하고 있었음. 수탁 중개사업의 경우 조합수수료는 한우 거래금액의 0.3~0.5%로 조사되었으며, 돼지의 경우 거래금액의 0.1~0.4%로 조사되었음.

● 산지조합이 매취사업을 통해 지역 내 지육으로 판매하거나 부분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유통마진을 조사한 결과, 생축의 구매 가격을 100이라 했을 때 한우 지육 판매가격은 110, 부분육 판매가격은 116으로 조사되어 한우고기 부분육 판매 유통마진이 1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돼지의 경우 지육 판매가격 107, 부분육 판매가격 117로 조사되어, 부분육 판매 유통마진은 17%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산지조합은 부분육 판매가격을 도매시장(공판장)의 지육 경매가격에 연동하여 결정하고 있었으며, 소비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거래처와 협상하여 결정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산지조합의 소매가격은 소비지 시장상황을 직접 반영하기 보다는 도매시장 가격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산지조합의 부분육 판매가격 결정 방식 】

항 목	응답률(%)
도매시장(공판장)의 지육 경매 가격에 연동하여 결정	81.0
소비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거래처와 협상하여 결정	23.8
기 타	0.0
전체 응답자 수(명)	21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 매취사업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① 매취 사업을 위한 자금의 부족, ② 농가와의 지속적인 거래 및 원료육의 안정적 확보의 어려움, ③ 사업 경영인력 부족 및 사업 책임자의 책임의식 부족, ④ 안정적인 판매처 및 판매장 확보의 어려움, ⑤ 비선호부위인 비구이용 판매망 확보의 어려움, ⑥ 원료돈 시세의 불안정성과 소비 위축, ⑦ 고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에 따른 소비의 광역화와 지역 소비시장 위축, ⑧ 산지조합 간 경쟁으로 인한 농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음.

● 산지조합의 매취사업에 있어 지육 거래처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한우 및 돼지고기 모두 거래처의 지육 대량 구매 능력이었으며, 부분육 거래처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거래처가 산지조합 브랜드를 취급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음.

【 산지조합의 매취사업 시 부분육 거래처 선정 요인 】

구 분	응답률(%)	
	한우	돼지
부분육 대량 판매 능력	28.6	45.5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보장	4.8	0.0
산지조합 브랜드 취급 여부	52.4	63.6
기타(직영점, 대리점)	19.0	18.2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 산지조합 중 20개 조합은 자체 부분육 가공을 향후 5년 이내에 평균 59%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자체 부분육 가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사양관리 강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품질 제고, 자체 소매망 확충, 학교급식처 등 다양한 수요처 개발을 통한 비선호 부위의 수요 확대, 그리고 마케팅 능력 제고 등을 제시하였음.

4. 도축작업장

● 도축작업장으로 반입되는 생축의 유통경로는 출하주체에 따라 농가가 직접 출하하는 방식, 농가가 산지조합의 수탁사업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방식, 수집반출상이 생축을 구매·중개하여 도축작업장에 출하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 가능함. 그리고 거래 방식에 따라 경매, 임도축, 일반구매, 직영농장 또는 계열농장 등 계열화를 통한 구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도축작업장 조사결과, 한우 반입경로별 비중은 산지조합을 통한 경로가 39.1%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수집반출상, 그리고 농가 순임. 거래방법별 비중은 임도축이 58.9%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경매, 일반구매, 계열구매 순임. 출하주체별 도축작업장 이용 형태는 농가와 수집반출상의 경우 임도축의 비중이 가장 크며, 산지조합은 경매용 도축이 대부분을 차지함. 도축작업장의 매취사업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임.

【 도축작업장 반입경로별, 거래방식별 비중(한우, 2010년) 】

단위: %

구 분	경매	임도축	일반구매	계열구매	합계
1경로: 농가	2.3	19.2	2.6	3.1	27.3
2경로: 산지조합	29.6	8.8	0.0	0.6	39.1
3경로: 수집반출상	1.5	26.1	1.1	0.0	28.7
4경로: 기타	0.2	4.7	0.0	0.0	4.9
합계	33.6	58.9	3.8	3.7	100.0

● 돼지 반입경로별 비중은 농가가 41.2%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수집반출상, 산지조합 순임. 거래방법별 비중은 임도축이 68.3%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경매임. 일반구매와 계열구매는 각각 6.7%와 14.6%로 한우보다 그 비중이 높아 돼지의 경우 도축작업장 또는 도축작업장을 소유한 업체에 의한 계열화가 진척되어 있음. 도축작업장이 일반구매 또는 계열농장을 통해 생축을 구매할 경우 농가 지불가격은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률, 생체 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거나, 농가와 사전에 협상하여 결정함.

【 도축작업장의 반입경로별, 거래방식별 비중(돼지, 2010년) 】

단위: %

구 분	경매	임도축	일반구매	계열구매	합계
1경로: 농가	1.6	20.9	4.2	14.5	41.2
2경로: 산지조합	5.6	13.0	0.5	0.0	19.1
3경로: 수집반출상	1.8	32.2	1.5	0.1	35.6
4경로: 기타	1.3	2.2	0.6	0.0	4.1
합계	10.4	68.3	6.7	14.6	100.0

● 도축작업장에서 반출되는 소 지육의 유통경로는 일반정육점(정육식당)이 3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부분육 가공업체 26.7%, 중간 유통업체 21.4% 순임.

【 도축작업장 지육의 유통경로(소, 2010년) 】

단위: %

구 분	경매	임도축	구매		합계
			일반	계열	
부분육 가공업체	3.9	22.8	0.0	0.0	26.7
자체부분육가공	1.3	1.5	3.7	3.4	9.9
중간유통업체	16.3	5.1	0.1	0.0	21.4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0.1	0.3	0.0	0.1	0.5
슈퍼마켓, 중소형마트	0.1	1.3	0.0	0.0	1.4
직영판매점(직영식당)	0.0	0.7	0.0	0.1	0.8
일반정육점(정육식당)	8.3	27.0	0.0	0.2	35.5
기타	3.8	0.0	0.0	0.0	3.8

● 돼지 지육의 반출경로는 부분육 가공업체 비중이 42.1%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일반정육점(정육식당) 23.0%, 자체 부분육 가공이 19.9% 순임.

【 도축작업장 지육의 유통경로(돼지, 2010년) 】

단위: %

구 분	경매	임도축	구매		합계
			일반	계열	
부분육 가공업체	0.5	40.1	0.9	0.5	42.1
자체부분육가공	0.8	3.4	4.5	11.2	19.9
중간유통업체	3.7	4.4	0.6	2.4	11.2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0.0	0.9	0.0	0.1	1.0
슈퍼마켓, 중소형마트	0.6	1.8	0.0	0.0	2.4
직영판매점(직영식당)	0.0	0.3	0.0	0.1	0.4
일반정육점(정육식당)	4.9	17.4	0.5	0.2	23.0
기타	0.0	0.0	0.0	0.0	0.0

● 조사 응답 도축작업장 중 70.7%가 도축물량 중 도축작업장 내에서 부분육으로 가공되는 물량이 있다고 응답함. 조사 응답 58개 도축작업장의 2010년 한우 도축두수는 44만 3,850두였으며, 이중 작업장 내에서 부분육으로 가공되는 물량 비중은 16.7%(7만 3,982두)로 낮았음. 돼지 도축두수는 1,148만 8,065두였으며, 이중 부분육 가공 물량 비중은 27.9%(321만 30두)로 한우보다는 높지만 낮은 수준이었음.

● 조사 응답 한우 도축작업장의 부분육 가공시설의 평균 처리능력은 1일 44두였음. 한우 도축작업장의 1일 처리능력은 2,798두인데 반해 부분육 가공시설의 처리능력은 522두로 도축능력 대비 부분육 가공능력 비중은 18.7%에 불과함. 한우 부분육 가공시설의 가동률은 25.9%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 조사 응답 돼지 도축작업장의 부분육 가공시설의 평균 처리능력은 1일 518두였음. 돼지 도축작업장 1일 처리능력은 3만 5,156두인데 반해 부분육 가공시설의 처리능력은 7,400두로 도축능력 대비 부분육 가공능력 비중은 21.0%에 불과함. 그리고 조사에 참여한 돼지 부분육 가공시설의 가동률은 61.1%로 한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조사 참여 도축작업장의 평균 한우도축 단위당 비용은 두당 12만 3,366원이었으며, 한우 부분육 가공 비용은 두당 12만 9,711원이었음. 돼지의 도축 단위당 비용은 두당 1만 6,098원이며, 돼지 부분육 가공 비용은 두당 2만 2,858원이었음.

● 조사 참여 도축작업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축 두당 비용과 도축두수 및 도축장 가동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축두수가 많을수록 도축 두당 비용이 감소하며, 도축가동률이 높을수록 도축 두당 비용이 낮은 것을 분석됨.

● 도축작업장에서 부분육 가공 후 판매할 때 유통마진을 조사한 결과, 두당 구매가격이 100원일 경우 판매가격은 평균 115원으로 나타나 유통마진은 15% 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 유통비용 절감을 비롯하여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해야 할 거래형태에 대해 한우의 경우 조사 참여 도축작업장의 42.9%가 계열화를 통한 구매였으며, 그 다음이 임도축(32.1%)이었음. 돼지의 경우 도축작업장의 55.4%가 계열화를 통한 구매였으며, 그 다음이 임도축(16.1%)이었음. 계열구매 비중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화를 통한 구매 확대가 축산물 유통 개선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였음. 경매를 실시하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은 모두 경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축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 확대해야 할 거래 형태 】

구 분		경매	임도축	일반구매	계열구매	합계
한우	응답자수	6	18	8	24	56
	비중(%)	10.7	32.1	14.3	42.9	100.0
돼지	응답자수	7	9	9	31	56
	비중(%)	12.5	16.1	16.1	55.4	100.0

●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확대해야 할 반입 경로에 대해서 한우의 경우 조사 참여 도축작업장의 72.0%가 농가라고 하였으며, 돼지의 경우 74.1%가 농

가라고 응답하였음. 도축작업장도 농가와의 직접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를 유통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조사 참여 도축작업장의 73.9%가 향후 부분육 가공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분육 가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분육 가공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통한 비용 절감, 비선호 부위의 수요 확대, 그리고 직영식당 및 직영판매점 등 소매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5. 육가공업체

●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는 거의 대부분 산지수집상 등 중간상인을 통해 원료육인 생축 또는 지육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중간상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축산물 비중은 한우 93.8%, 돼지 93.2%임. 계열화된 부분육 가공업체는 농가와 산지조합으로부터 물량을 확보 또는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육가공업체 축산물 구매 경로 】

구 분	유통경로 비중(%)			확대 희망 유통경로 (응답률,%)	
	한우	돼지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20개소)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20개소)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5개소)	한우	돼지
산지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위탁 및 직매	3.1	6.8	48.3	35.3	60.0
산지수집상등 중간상인의 위탁 및 직매	93.8	93.2	0.3	41.2	15.0
직접 경매 참여	–	–	–	29.4	10.0
농가	3.1	–	51.3	23.5	10.0
합계	100.0	100.0	100.0		

주 1.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는 농가와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를 의미함.
2.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확대해야 할 구매 경로에 대해 한우의 경우 조사 참여 육가공업체의 41.2%가 '산지수집상 등 중간 상인의 위탁 및 직매'를 선택하였으며, 돼지의 경우 60.0%가 '산지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위탁 및 직매'를 선택함. 육가공업체는 한우의 경우 중간상인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절감하고, 돼지의 경우 원료육의 균일한 품질 유지 및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서 산지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직접거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육가공업체의 가공육 판매경로는 한우의 경우 일반정육점 및 정육식당으로 판매하는 비중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점이19.3%로 높았음. 돼지는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와 계열화된 육가공업체의 판매처 비중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났음.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는 일반정육점 및 정육식당과 음식점으로의 판매가 각각 38.5%와 39.5%로 대부분을 차지함. 반면 계열화된 육가공업체는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이 44.9%로 가장 높았음.

【 육가공업체의 판매처 비중 】

단위: %

구 분	한우	돼지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합계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16.4	0.0	44.9	37.2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13.5	15.3	3.9	5.8
일반정육점(정육식당)	45.1	38.5	9.5	14.5
음식점	19.3	39.5	6.2	11.9
단체급식처	4.3	2.0	2.7	2.5
2차 육가공업체	0.8	0.0	14.6	12.1
직영판매점(직영식당)	0.0	0.4	8.5	7.1
기타(소매, 대리점 등)	0.6	4.4	9.7	8.8
합계	100.0	100.0	100.0	100.0

● 부분육 가공업체의 평균 마진율을 조사한 결과, 한우의 경우 구입가격의 6%, 돼지의 경우 구입가격의 9.4%였음. 돼지의 경우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와 계열화된 부분육 가공업체 간이 차이가 있음. 계열화된 육가공업체가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보다 구매가격은 낮고 마진율은 높음. 그러나 낮은 구매가격이 높은 마진율을 상쇄하기 때문에 판매가격 역시 계열화된 부분육 가공업체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육가공업체의 산지 계열화를 통한 생축 또는 지육의 직접 또는 위탁 구매하는 경우가, 부분육 가공업체의 중간상인을 통한 생축 또는 지육을 구매하는 경우보다 소비지에서의 축산물 가격 하락에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음.

【 부분육 가공업체의 축산물 구입 및 판매가격 】

구 분	한우 지육 1+등급	돼지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전체
평균 구입가격(천원)	6,748	641	500	612
평균 중량(kg)	446	88	92	89
평균 판매가격(천원)	7,153	687	582	670
임가공료(천원/마리)	197	22.5	24.5	23.0
마진율(%)	6	7.2	16.5	9.4

● 육가공업체의 부분육 판매가격은 주로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주로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지육 경락가격이 부분육 판매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도매시장 및 공판장 경락가격의 안정이 소비지 부분육 가격의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육가공업체의 유통비용 절감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확대해야 할 판매경로로 한우의 경우는 대량으로 물량을 취급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및 슈퍼마켓의 비중이 높았음. 돼지는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의 경우 현재 판매 비

중이 높은 일반정육점 및 음식점을 앞으로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함. 계열화된 육가공업체의 경우 현재 판매 비중이 높은 대형할인점의 비중이 높았으며, 물량을 안정적으로 판매해줄 수 있는 직영판매점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육가공업체의 확대 판매경로 】

구 분	한우	돼지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소비지 부분육 가공업체	계열화된 육가공업체	합계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52.6	5.0	60.0	16.0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78.9	20.0	20.0	20.0
일반정육점(정육식당)	52.6	75.0	40.0	68.0
음식점	47.4	45.0	0.0	36.0
단체급식처	5.3	20.0	20.0	20.0
2차 육가공업체	5.3	10.0	40.0	16.0
직영판매점(직영식당)	10.5	20.0	80.0	32.0
기타(소매, 대리점 등)	0.0	0.0	0.0	0.0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6. 소매업체

6.1. 대형유통업체

● 대형할인점 및 SSM(Super Supermarket) 조사결과, 한우 구매 경로는 업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B업체와 C업체는 대부분 또는 전량을 지육상태에서 구매하나, A업체는 30%를 지육 상태에서 구매하고, 70%는 부분육 상태에서 구매함. 그러나 돼지의 경우는 거의 또는 전량을 육가공업체로부터 부분육 상태에서 구매한 후 자체 물류센터를 통해 매장에 공급함.

【 대형할인점 및 SSM의 축산물 구입 경로(2010년 기준) 】

단위: %

구 분		한우			돼지		
		A업체	B업체	C업체	A업체	B업체	C업체
지육 구매 비중		30	95	100	10	0	0
부분육 구매 비중		70	5		90	100	100
지육 구매 경로	육가공업체 (위탁 구매)	–	75	–		–	–
	경매(중도매인)	–	10	60		–	–
	산지조합	100	15	40		–	–
	농가 (직접구매, 계열농가)	–	–	–	100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부분육 구매 경로	육가공업체	100	85		100	100	82
	산지조합	–	15	–	–	–	18
	합계	100	100	–	100	100	100

주: 2011년 7~8월 대형할인점 조사 결과.

● B업체는 한우의 경우 전체 판매 물량의 95%를 생체 또는 지육 상태에서 구매하며, 5%를 부분육 상태에서 구매함. 산지조합, 육가공업체 등 협력업체로로부터 한우를 직접 또는 위탁 구입함. 산지조합으로부터 지육을 구입하는 물량이 약 15%이며, 75%는 육가공업체 등 협력업체를 통해 구입함.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중도매인으로부터 구입하기도 함. 협력업체를 통해 위탁구매를 하는 이유는 원하는 시기에 물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구입한 한우는 지정 도축·가공장을 거쳐 물류센터 또는 가공센터로 이동함. 매장에서는 별도의 발골을 하지 않고 부분육 상태로 유통됨. 부분육의 약 15%는 산지조합 및 생산자 단체로부터 구입하며 85%는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함. 한우의 연간 판매두수는 2010년 기준 약 2만두임. 돼지고기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부분육 상태로 구입하며 돼지 연간 판매두수는 72만두 수준임.

● C업체는 2010년 기준으로 한우의 경우 전량 지육 상태에서 구매하며, 돼지의 경우 전량 부분육 상태에서 구매하여 판매함. 한우의 경우 40%는 산지조합 및

영농조합 등 생산자단체로부터 구매하며 60%는 직접 중도매인으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구매함. 구매한 지육은 전량 육가공업체에서의 임가공을 통해 부분육으로 매장에 유통시킴. 매장에서는 발골없이 단순세절 및 포장작업만 이루어짐. 돼지의 경우 산지조합 및 영농조합 등 생산자 단체로부터의 구입하는 물량이 약 82%이며 민간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물량 비중은 약 18%임.

- 조사업체 모두 판매가격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구매가격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함. 한우의 경우 지육 구매가격 대비 17~22%의 유통마진이 있으며, 돼지고기 부분육 구매가격 대비 평균적으로 13%~16.5%의 유통마진이 있음. 유통마진에는 인건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기타경비 등의 구매 및 판매를 위한 각종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 판매가격 결정시 참고하는 가격은 다른 업체의 가격과 지육 경락가격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형할인점 및 SSM의 판매처는 거의 대부분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장 내 판매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소비자 대상 인터넷 판매가 일부 있었지만 비중은 매우 낮았음.

【 대형할인점 및 SSM의 축산물 판매경로 비중 】

한우고기 및 돼지고기		
판매처		비율(%)
일반소비자	매장 판매	97.33
	인터넷 판매	2.33
식자재 판매		0.33
합 계		100

자료: 현지조사.

6.2. 정육점

● 정육점은 도축작업장, 중간유통업체, 부분육 가공업체 등으로부터 지육(구매 후 부분육으로 가공) 또는 부분육을 구매하여 일반소비자, 음식점 등에 판매함. 한우의 경우 지육 구매 비중이 약 77.5%이며, 돼지의 경우 약 56.8%로 여전히 지육 상태로 구매한 후 부분육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비중이 높음.

【 정육점의 지육 및 부분육 구매 비중 】

단위: %

구 분	한우	돼지
지육	77.5	56.8
부분육	22.5	43.2
합계	100.0	100.0

● 지육의 경우 한우는 중간상인, 농가(수집반출상)로부터의 구매가 대부분임. 돼지는 중간상인이 가장 많으며, 육가공업체, 농가(수집반출상) 순임. 부분육은 한우와 돼지 모두 육가공업체로부터 대부분 구입함.

【 정육점의 원료육 구매 경로 】

단위: %

경로		한우	돼지
지육	중간상인(중도매인, 중간유통업체)	38.3	35.5
	육가공업체	4.8	11.5
	농가(수집반출상 포함)	30.0	7.8
	산지조합	1.5	1.0
	기타	2.9	1.0
부분육	육가공업체	20.1	41.7
	기타	2.4	1.5
합계		100	100

● 거래처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한우와 돼지 모두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시기에 쉽게 확보 할 수 있는가임. 그 다음으로는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맞추기 위함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임. 지육의 경우 많은 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어 원하는 물량 및 시기를 잘 맞출 수 있는 중간상인과 주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가 및 수집반출상과의 산지 직접거래가 많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정육점의 구매처 선정 요인 】

단위: %

구 분	한우		돼지	
	지육 (응답률)	부분육 (응답률)	지육 (응답률)	부분육 (응답률)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시기에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49.7	53.3	48.0	51.4
구매 단가가 가장 낮기 때문에	5.7	4.0	4.3	3.9
그동안 계속 거래해왔기 때문에	7.4	4.7	9.9	7.9
판매하는 거래처 또는 소비자의 수요 때문에 (브랜드나 특정 지역의 축산물)	4.0	6.7	6.8	6.9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31.8	28.7	30.7	28.1
기타	1.4	2.7	0.3	1.8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 판매가격은 주로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도매시장 경락가격 및 구매가격을 참고하여 일정 비율 또는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판매가격 결정시 다른 업체의 가격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지육 경락가격이 정육점에서의 판매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의 경락가격의 안정이 소매단계에서의 판매가격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정육점의 축산물 판매가격 결정 방식 】

항 목	응답률(%)
구매 가격에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붙여 판매함	47.7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	53.5
판매처와 가격 및 공급 계약을 맺어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가격에 판매	0.6
기타	0.6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 정육점의 판매처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소비자가 가장 크며, 음식점, 다른 정육점 순으로 나타났음. 정육점의 축산물 판매경로 비중은 한우고기의 경우 일반소비자에게 72.4%, 돼지고기의 경우 66%가 판매되었으며, 음식점과 다른 정육점으로 각각 한우고기는 24.4%, 돼지고기는 32.2%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육점의 축산물 판매처 비중 】

단위: %

항 목	한우	돼지
일반소비자	72.4	66.0
음식점	13.6	17.8
다른 정육점	10.8	14.4
자가 운영 식당	2.7	1.4
기타	0.5	0.4

자료: 자체 조사.

7. 소비자

● 일반소비자에 대한 한우 및 돼지고기 구매처 조사 결과 대형할인점에서의 구매 비중(한우 37.3%, 돼지고기 36.9%)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정육점(정육식당), 슈퍼마켓·중소형 마트 순이었음. 브랜드 직영판매점(직영식당)에서의 구매 비중은 한우 5.5%, 돼지고기 4.2%에 불과하였으나,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화와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에 대해 28.6%의 응답자가 브랜드 직영판매점(직영식당)을 제시하였음.

【 소비자의 한우·국내산 돼지 구매 경로 】

	구매 경로 비중		가장 확대해야 할 유통경로(%)
	한 우	돼지고기	
일반정육점(정육식당)	27.8	27.7	20.4
백화점	6.8	5.9	1.2
슈퍼마켓, 중소형 마트	19.1	21.7	15.4
대형할인점(농협하나로클럽 포함)	37.3	36.9	29.2
인터넷 또는 통신판매	1.6	2.1	5.1
브랜드 직영판매점(직영식당)	5.5	4.2	28.6
구입한적 없음	1.0	0.9	99.9
기타	0.8	0.6	

●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국내산인지 아니면 수입 축산물인지를 나타내는 원산지를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하였음. 그 다음으로 가격을 고려하였으며, 요리의 용도 표기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쇠고기의 경우 구입하는 품종이 한우인지, 젖소인지에 대한 표기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반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음.

【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시 고려 사항 】

	쇠고기		돼지고기	
	응답자수	응답률(%)	응답자수	응답률(%)
원산지(국내산, 수입산)	494	83.7	469	79.5
가격	317	53.7	328	55.6
국거리용 등 용도 표시	135	22.9	168	28.5
부위 구분 표시	67	11.4	154	26.1
안전성(유기 축산물, HACCP 인증 등)	29	4.9	40	6.8
한우, 육우, 젖소 구분 표시	99	16.8	–	–
등급 표시	35	5.9	–	–
브랜드(회사명)	2	0.3	20	3.4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 일반소비자의 축산물 구매처 선택 기준으로 일반정육점을 선택하는 이유는 '접근성 및 교통 편리'(응답률:68.2%)때문이었으며, 대형할인점을 선택하는 이유는 '축산물 이외 다른 상품을 구입하기가 용이'(응답률:55.3%)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리고 브랜드 직영판매점을 선택하는 이유는 구입하는 축산물의 '품질이 우수'(응답률:77.8%)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소비자 구매처 선택 기준 】

항목	구매처 선택 기준(응답률, %)		
	일반정육점	대형할인점	브랜드 직영판매점
품질 우수	58.2	36.7	77.8
가격 저렴	22.9	26.3	44.4
접근성, 교통 편리	68.2	39.3	55.6
원하는 브랜드 고기 구입	12.9	20.7	22.2
축산물 이외 다른 상품 구입 용이	20.6	55.3	0.0
가격 및 근량에 대한 투명성	10.6	20.7	0.0
기타	0.6	1.0	0.0

주: 응답률=행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8. 유통주체별 정책 과제 우선순위

● 물가안정과 유통효율화를 위한 15개 축산 유통 정책 과제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우와 돼지로 구분하여 각 유통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유통주체별로 정책과제의 중요도에 대해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중요성이 강조되는 정책과제는 몇 가지로 요약됨.

● 한우의 경우 직거래 확대는 모든 유통 주체들에게 있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부분육 유통 활성화, 가격결정 체계,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도축장 구조조정, 부분육 유통 활성화,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에 대한 정책 과제는 세 그룹 이상의 유통주체들로부터 5순위 내에 포함되었음. 한우농가와 도축장은 직거

래 확대가 물가안정과 유통효율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평가하였고, 산지조합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를, 부분육 육가공업체는 부분육 유통 활성화를, 정육점은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함.

【 유통 주체별 정책과제 우선순위(한우) 】

정 책	한우농가		산지조합		도축장		부분육 가공업체		정육점	
	응답률	순위	응답률	순위	응답률	순위	응답률	순위	응답률	순위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30.8	2	54.3	1	22.0	5	5.3	11	9.3	11
민간 계열화 활성화	19.0	7	0.0	13	48.0	3	0.0	13	6.9	14
직거래 확대	63.1	1	42.9	2	48.0	2	52.6	2	30.4	3
축산물 이력제	28.0	3	17.1	7	6.0	9	21.1	3	20.8	6
산지조직화(규모화)	26.5	4	34.3	3	22.0	5	10.5	8	10.0	10
선물시장 활성화	11.8	12	0.0	13	4.0	11	5.3	11	5.2	15
도축장 구조조정 (시설 확충 및 현대화)	23.9	5	14.3	8	76.0	1	10.5	8	30.4	4
가격 결정 체계 (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12.9	10	25.7	5	12.0	7	21.1	3	26.6	5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6.7	13	2.9	11	0.0	13	10.5	8	13.5	8
축사시설 현대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15.7	8	8.6	9	6.0	9	21.1	3	18.3	7
송아지 생산 안정제	13.5	9	2.9	11	4.0	11	21.1	3	10.4	9
부분육 유통 활성화	12.4	11	34.3	3	24.0	4	57.9	1	32.2	2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23.5	6	20.0	6	12.0	7	21.1	3	42.6	1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0.2	14	0.0	13	0.0	13	0.0	13	8.7	13
기타	0.0	15	8.6	10	0.0	13	0.0	13	0.7	16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

● 돼지의 경우, 한우와 마찬가지로 직거래 확대가 모든 유통주체들에게 있어 높은 순위를 차지함. 세 그룹 이상의 유통주체들로부터 5순위 내에 포함되는 정책과제들은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도축장 구조조정, 가격 결정 체계,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대, 부분육 유통 활성화 등이었음. 직거래 확대는 도축장과 부분육 육가공업체로부터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평가받았고, 양돈농가는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 개발 등

생산성 증대를, 산지조합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를, 정육점은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하였음.

【 유통 주체별 정책과제 우선순위(돼지) 】

정 책	양돈농가		산지조합		도축장		부분육 가공업체		정육점	
	응답률	순위	응답률	순위	응답률	순위	응답률	순위	응답률	순위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46.3	2	57.1	1	19.2	5	13.6	8	8.3	12
민간 계열화 활성화	12.0	10	0.0	11	50.0	2	0.0	13	6.2	15
직거래 확대	30.1	5	38.1	2	40.4	3	54.5	1	26.8	5
축산물 이력제	41.4	3	14.3	9	5.8	10	9.1	10	15.6	7
산지조직화(규모화)	14.4	8	28.6	3	11.5	8	13.6	8	9.4	10
선물시장 활성화	4.2	13	0.0	11	17.3	7	4.5	11	6.9	13
도축장 구조조정 (시설 확충 및 현대화)	18.1	7	19.0	8	71.2	1	27.3	5	27.5	4
가격 결정 체계 (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24.8	6	28.6	3	19.2	5	31.8	4	28.3	3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10.6	11	0.0	11	0.0	13	4.5	11	13.8	8
축사시설 현대화,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52.1	1	23.8	5	9.6	9	18.2	7	19.6	6
모돈 전문농장 육성	13.2	9	14.3	9	1.9	12	22.7	6	12.3	9
부분육 유통 활성화	9.0	12	23.8	5	26.9	4	54.5	1	32.6	2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31.3	4	23.8	5	3.8	11	45.5	3	42.0	1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1.2	14	0.0	11	0.0	13	0.0	13	9.1	11
기타	0.7	15	0.0	11	0.0	13	0.0	13	0.7	16

주: 복수 응답을 허용함. 응답률=해당 항목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100.